

수원화성박물관 재정비 사업 방향 연구

A Study on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Comprehensive Revitalization of the Suwon Hwaseong Museum

신한나, 정은지

CONTENTS

연구요약

01 서론 0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02 수원화성박물관 현황 진단 07

제1절 기관 개요 및 운영 기반

제2절 전시·교육·홍보 운영 현황

제3절 이용 현황 및 이용자 인식

제4절 진단 및 종합

03 사례 연구 35

제1절 국내외 박물관 운영 사례

제2절 박물관 공간 재편 사례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04 재정비 기본 구상 65

제1절 역할 재정립: 수원화성의 해석 거점

제2절 콘텐츠 재정비 방향

제3절 공간·시설 재정비 방향

제4절 콘텐츠 개선의 도달점과 물리적 한계

05 결론 및 시사점 75

제1절 리모델링 추진의 필요성과 사업 방식

제2절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

제3절 결론 및 정책 제언

[부록] 세부 구성(안) 87

참고문헌 93

연구요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수원화성박물관 재정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첫째, 전시·공간, 위상·연계, 운영·인력, 연구·콘텐츠 측면에서 현황을 진단하여 재정비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함
 - 둘째, 국내외 박물관의 운영 및 공간재편 사례를 진단 결과에 대응하도록 재구성하여 수원화성박물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박물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비의 기본원칙과 부문별 추진과제를 제시함
 - 넷째,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로드맵과 정책 제언을 제시함

주요 내용 및 결과

- 수원화성박물관 현황 진단
 - 박물관의 운영 기반과 전시·교육·홍보 현황, 이용행태 및 이용자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시·공간, 위상·연계, 운영·인력, 연구·콘텐츠 측면에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 수원화성박물관 진단 결과 종합

구분	핵심진단	주요내용	재정비 방향
① 전시·공간	관람객 중심의 전시 및 공간 재구성 필요	• 핵심 주제 중심의 상설전시 스토리라인 및 관람동선 재구성 • 영상·미디어·체험형 콘텐츠의 적정 활용과 유물 설명체계 보완 • 층고 등 구조적 제약을 고려한 전시 배치·밀도·집기 개선 • 어린이체험실 개선 및 휴게·독서·식음 등 체류공간 확충 • 뮤지엄숍의 관람 종료 동선 연계 및 공간 활용 개선 • 조명·조도 및 노후 전시시설의 단계적 개선 • 소장품 증가에 대응한 수장공간 확충 및 보존환경 개선	‘보는 박물관’에서 이해하고 머무르는 박물관으로 전환

② 위상·연계	수원화성의 핵심 해석거점으로서 대외적 역할 강화 필요	- 화성행궁·연무대·방화수류정, 화성어차·성곽길 등 주요 관광동선과 박물관 연계 - 관광 홈페이지·지도·답사코스 등 온·오프라인 안내체계 강화 - 수원화성문화제 등 대표 축제와 전시·체험·홍보 프로그램 연계 - 유관기관 상품 입점 및 소장품·연구성과 기반 자체 문화상품 확대 - 지역 작가·디자이너 및 유관기관과의 상품개발·브랜드 협업 강화 - 소장 자료·연구 성과의 외부 콘텐츠 활용 및 역사 검증·해석 자문·공동기획 확대 - 국내외 세계유산·성곽·도시유산 관련 기관과 공동 전시·학술 교류·콘텐츠 교환 확대	‘수원화성 옆 박물관’에서 수원화성을 연결하고 확산하는 핵심거점으로 위상 강화
③ 운영·인력	확대되는 박물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보강 필요	- 전시·연구·교육·홍보·관광·문화상품·대외교류 등 확대 기능에 대응한 운영체계 정비 - 홍보·마케팅 전담기능 강화 및 홍보·교육팀 등 전담조직 구성 검토 - 관광객 유입, 축제·이벤트, 문화상품·브랜드 협업, 국내외 교류 등 전략적 홍보기능 강화 - 교육·체험 및 시설대관 수요 증가에 대응한 운영인력 확보 - 연구·전시 과제의 2~3년 단위 추진 및 담당업무·예산의 연속성 확보 - 기능별 전문 인력의 단계적 충원 및 업무분담 체계화 - 핵심 전문역량의 직접 수행과 외부 전문기관 협업·위탁 영역 구분	시설 재정비와 함께 지속가능한 운영·전문인력 체계 구축
④ 연구·콘텐츠 확장	축적된 연구자원의 새로운 해석과 콘텐츠 확장 필요	- 정치사·건축사 중심에서 음식·음악·복식·의례·생활문화 등으로 전시 주제 확장 - 한식·공연·패션 등 K-컬처와 연계한 동시대적 재해석 및 협업 전시 추진 - 특정 유물·기록·인물을 활용한 소규모·주제형 전시 등 다양한 전시 시도 ‘조사·연구 → 학술발표 → 전시’로 이어지는 중장기 콘텐츠 기획체계 구축 - 학술총서·유물 해제·원문자료 등 아카이브의 디지털 공개 및 활용 확대 - 온라인 전시 등 연구성과의 시민·연구자 접근성 강화	‘축적하는 연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콘텐츠 기반으로 확장

□ 운영 및 공간재편 사례분석 및 결과

- 수원화성박물관 재정비 방향 도출을 위해 국내외 박물관 사례 총 15건을 운영 혁신 9건과 공간 재편 6건의 두 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운영 혁신은 국립공주박물관의 〈무령왕릉 실감콘텐츠〉, 대구간송미술관의 〈훈민정음 해례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디지털 황룡사: AR 현장 복원〉, 국립춘천박물관의

〈창령사 터 오백나한〉 브랜드 소장품화,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의 〈문창상품〉 서사 기반 상품화, 국립진주박물관의 유튜브 「화력조선」, 문화역서울284 구 역사 공간재생, 런던박물관·런던탑 이원 거버넌스, 맨체스터 뮤지엄 파트너십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시·콘텐츠, 브랜드·마케팅, 연구 성과 활용 및 운영·협력체계를 검토

- 공간 재편은 부산시립미술관 본관 리노베이션을 비롯하여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대향로관 증축, 한국이민사박물관 증축,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한밭교육박물관 신축 이전,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등 리모델링·증축·신축 및 이전 사례 6건을 비교하여 재정비 방식과 공간 구성 방향을 검토

○ 박물관 **운영 혁신** 사례 분석 결과

- 대표 유물과 축적된 연구성과를 전시·미디어·체험 콘텐츠로 재해석하여 기관만의 차별화된 관람 경험을 구축하는 전략이 중요함
- 소장품과 기록·연구성과를 전시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상품, 브랜드,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확장하여 인지도와 방문 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도 기존 연구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며, 조사·연구·전시·교육·홍보·브랜드·상품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효과적임
- 유산 현장과 박물관 간 기능 분담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기획·콘텐츠 교류 등 협력을 통해 박물관을 지역 문화·관광의 해석 거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공간 재편** 사례 분석 결과

- 공간 재편은 단순한 노후시설 보수가 아니라 전시·수장·교육·체험·휴게·편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관람 경험과 박물관 기능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향온·향습 및 수장환경 등 보존 기반의 개선은 소장품 보존뿐만 아니라 대형 기획전 유치와 소장품 활용 등 전시 경쟁력 확보와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리모델링·증축·신축 이전 등 재정비 방식은 기존 입지의 상징성, 공간적 제약, 시설 노후도와 향후 기능 확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시설사업은 장기간의 타당성 검토와 행정절차가 요구되므로 단기적인 콘텐츠·전시환경 개선과 중장기적인 시설 재정비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수원화성박물관은 축적된 연구·소장자원을 활용한 운영·콘텐츠 혁신을 우선 추진하면서, 전시·수장·교육·편의 기능을 개선하는 중장기 공간 재편을 병행하여 수원화성의 핵심 해석·콘텐츠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비 기본 구상

수원화성박물관 재정비 방향

비 전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가치를 새롭게 **경험**하고 **확산**하는 대표 박물관

방 향

현 재

재 정 비

▶ 관람 중심

전시 관람 후 떠나는 경유형 공간

▶ 정적 전시 중심

유물·패널 중심의 보는 전시

▶ 보관 중심

수장·보존환경 및 전문기능의 한계

▶ 개별 시설 중심

수원화성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 부족

▶ 체류·경험 중심으로 전환

머물고 즐기는 박물관으로

▶ 전시 패러다임 전환

이해하고 경험하는 전시로

▶ 박물관 전문기능 강화

연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박물관으로

▶ 역할과 공간의 확장

수원화성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세부항목
1

머물고 즐기는 박물관

- ▶ (체류형 편의공간 조성) 카페·휴게 공간 확충 및 뮤지엄숍 독립·고도화
- ▶ (유휴공간 활용) 로비·복도 등을 열린 휴게·문화공간으로 전환
- ▶ (무장애 관람환경) 무장애 공간 및 무장애 전시 콘텐츠 구축

세부항목
2

이해하고 경험하는 전시

- ▶ (상설전시 재구성) 핵심 주제 중심의 스토리라인 및 관람동선 전면 재구성
- ▶ (전시매체 다변화) 실감영상·미디어아트·인터랙티브 등 몰입·참여형 콘텐츠 도입
- ▶ (전시·체험 연계) 전시와 교육·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콘텐츠 구성

세부항목
3

연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박물관

- ▶ (수장공간 고도화) 수장고 재배치·확충 및 재질별 수장환경 개선
- ▶ (전문 보존기능 강화) 지류 보존처리실 확보 및 전문 보존기능 강화
- ▶ (보존환경 개선) 향온·향습·조도·공조 등 소장품 보존환경 전면 개선

세부항목
4

수원화성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

- ▶ (진입공간 정비) 입구·외관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입동선 개선
- ▶ (야외공간 활성화) 야외 유물·조경·휴게공간을 연계한 옥외 문화공간 조성
- ▶ (수원화성 연계) 화성행궁·성곽길·축제 등 주변 관광자원과 전시·프로그램 연계

- 콘텐츠 재정비는 상설전시의 스토리와 전달 방식, 학술 콘텐츠의 확장, 브랜드·체험 기능까지 아우르는 여섯 개 방향으로 추진 제안

표 | 수원화성박물관 콘텐츠 재정비 방안

구분	핵심 방향	주요 내용
1. 전시 재구성	'보는 박물관'에서 '이해하고 머무르는 박물관'으로 전환	• 총별·구역별 주제 명확화(정조, 축성, 세계유산, 복원 등) • 전시 동선 및 스토리라인 강화, 도입부·안내체계 개선 • 유물 설명 및 역사적 맥락 보완 • 조도·노후시설 개선 및 핵심 유물 중심 전시 재편
2. 해석 매체와 디지털 활용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균형 있는 병행	• 영상·미디어 콘텐츠 보완 • 도입부·몰입형 콘텐츠의 단계적 배치 • 설명형 영상·미디어아트·참여형 콘텐츠 적정 배분 • AI 생성 콘텐츠의 역사 고증 및 전문가 감수 체계 구축 • 학예연구 성과와 연계한 온라인 콘텐츠 및 '내 손안에 박물관' 상시 운영
3. 학술 심화와 주제 갱신	연구성과의 지속적 축적과 확장	• 조사·학술발표·전시를 연계한 3년 주기 연구체계 구축 • 학술총서를 시리즈화하여 전문성 강화 • 화성원행을 행사별·주제별로 심층 조명 • 19세기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 성곽 외부 유적과 연계한 전시·답사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아카이브 공유 확대(PDF, 원문 공개 등)
4. 횡단적 주제화와 동시대 접점	생활문화 중심의 새로운 해석	• 정치·축성 중심에서 음식·음악·의복·길 등 생활문화 중심으로 전환 • 음식(화성 행차), 봉수당 진찬, 궁중음악 등 감각형 콘텐츠 개발 • 의복·색채·이동·생활사 등 신규 주제 발굴 • 동시대 관심사와 학술 고증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 • 전시를 교육·출판·굿즈로 확장하는 콘텐츠 생태계 구축
5. 브랜드 확장 및 뮤지엄숍·굿즈 연계	박물관 브랜드 확장 및 운영체계 개선	• 굿즈를 콘텐츠 전략의 일부로 활용 • 유물 복제가 아닌 기록과 서사를 활용한 상품 개발 • 전시와 굿즈를 동시 기획하여 브랜드 경험 강화 • 수원 관광 및 화성문화제와 연계한 관광 생태계 구축 • 국내외 박물관 협력 확대 • 교육홍보 기능 강화, 전문 인력 및 청년 참여
6. 관람객이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콘텐츠·프로그램 확대	관람객이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 수원화성문화제 등 주요 행사·축제와 연계한 시즌형·특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존 어린이 중심 체험에서 가족·청소년·성인 등 다양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 • 정조, 화성 축성, 의궤, 전통생활문화 등 수원화성박물관의 핵심 자원을 활용한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이 분리되지 않도록 전시 연계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관람 경험의 확장 유도

- **공간·시설 재정비**는 기반설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보존·수장 환경, 전시 공간, 관람·체류 기반, 유휴공간의 순으로 다섯 개 방향으로 병행 추진 제안

표 | 수원화성박물관 공간 재정비 방안

구분	핵심 방향	주요 내용
1. 기반설비 안전성 확보	노후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설비의 안전성 확보	• 건축 구조 및 마감재 노후도 진단 • 기계(공조·급배수)·전기·통신 설비 노후도 진단 및 시급 보수 • 관람객·소장품 안전에 직결되는 항목부터 최우선 보수
2. 전시 공간	전시공간 재편 및 몰입형 콘텐츠 수용	• 기존 전시실 면적 한계를 고려한 공간 재구성 • 화성축성실과 화성문화실의 기능 차별화 • 몰입형 콘텐츠 전용 공간 확보 • 1층 로비를 인트로 공간으로 전환 •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간 연계 운영체계 구축
3. 보존·수장 환경	보존환경 고도화 및 수장 기능 강화	• 소장품 중 지류(종이) 유물 비중이 높은 특성을 반영한 지류 보존처리실 확보 • 지류 보존 전문인력(보존과학 인력) 확보 • 온·습도, 조도, 공조 설비 등 보존환경 정밀진단 및 단계적 개선 • 수장 설비 재배치 및 필요 설비 구비. 이후 개방형(보이는) 수장고 도입 검토
4. 관람·체류 기반	체류형 관람환경 및 이용 편의 개선	• 어린이체험실을 박물관 입구 옆(현 카페 위치)으로 이전하여 접근성 확보 제안 • 기존 어린이체험실 자리에 카페·휴게 기능 재배치 • 휴게·독서·식음 공간 등 체류형 편의시설 확충 • 뮤지엄숍의 독립 운영 및 전시 연계 기능 강화 • 유니버설 디자인 및 무장애 관람환경 구축
5. 유휴 공간 활용	단계적 공간 재편 및 리모델링 기반 마련	• 로비·복도 등 유휴 공간의 기능 전환을 통한 활용도 제고 • 기능 전환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을 우선 추진 •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범위와 예산의 타당성 확보

□ 추진 로드맵

- 건축·시설 리모델링과 함께 박물관 자체 운영체계 및 콘텐츠 전반을 점검
- 전시·체험·교육 콘텐츠의 재구성을 위한 기획·계획을 병행
- 시설과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면 재정비** 추진



□ 리모델링 필요성

필요성 1	변화하는 전시환경에 대응할 공간 부족 - 실감콘텐츠, VR·AR,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체험형 전시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 전시공간은 고정형 진열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전시방식 적용에 한계 - 기존 전시실의 면적과 구조적 제약으로 몰입형 콘텐츠 전용공간 확보와 전시공간의 유연한 재구성이 어려운 상황
필요성 2	개관 이후 지속된 시설 노후화 - 준공 이후 17년이 경과하면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및 조명 등 기반설비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필요 - 관람환경의 쾌적성과 운영 안정성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소장품의 안전에 직결되는 설비를 중심으로 선제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
필요성 3	다양한 체험·참여형 콘텐츠 수용 한계 - 현재 공간은 관람·이동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험·교육·참여 등 다양한 활동과 이용방식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데 한계 - 아동·고령자·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장애·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체험환경으로 공간 재편 필요
필요성 4	관람객 체류를 위한 공간 확충 필요 - 카페·휴게공간, 어린이체험실, 뮤지엄숍 등 주요 편의·체험 기능이 관람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함 - 관람 흐름을 고려하여 카페·휴게공간, 어린이체험실, 뮤지엄숍 등의 위치와 기능을 재배치하고, 전시·체험·휴식이 연속되는 체류형 공간구조로 재편할 필요

□ 기대효과

- 시설 개선을 넘어 박물관의 위상과 역할, 도시의 관광·문화 가치까지 확장되는 재정비
-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확산하는 대표 박물관으로 전환

[위상] 연구하고 해석하는 박물관 보존·수장 기능 확보로 소장품의 연구 자원화 연구 성과의 기획전시·학술총서 연계	[역할] 수원화성 관람의 '관문'으로 진입공간 정비로 화성 방문객 유입 개선 화성행궁·성곽길·축제 연계 거점화
[관광] 찾아오고 머물게 하는 박물관 몰입형 전시로 방문 목적지화 카페·휴게·뮤지엄숍 확충으로 체류시간 증대	[가치]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가치 확산 음식·음악·생활사 등 주제 다변화로 반복 방문 유도 전시·교육·체험·굿즈 연계로 관람 이후까지 확산

정책제언

□ 관람 중심의 공간에서 체험·학습·휴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체류형 박물관으로 공간구조 재편

- 어린이체험실의 수용력과 프로그램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연령과 이용 특성을 고려한 체험·교육공간으로 재구성
- 카페·휴게공간, 뮤지엄숍 등 현재 분산되거나 기능이 미흡한 편의공간을 관람동선과 연계하여 재배치하고 관람 전·후 체류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기능 강화
- 실감형 콘텐츠, 디지털 전시, 앵커 오브젝트 등 새로운 전시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보
- 무장애 관람환경과 휴게·안내 기능을 함께 개선하여 연령과 이용 특성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관람·체험·체류할 수 있는 공간환경 조성

□ 박물관의 기본 책무인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전면 리모델링의 핵심 기능으로 반영

- 소장품의 재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장고의 규모·배치와 온·습도 등 보존환경을 재검토하고, 향후 소장품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수장체계 구축

- 지류 중심의 소장품 구성에 대응하여 지류 보존처리 공간 및 관련 전문기능을 확충하고 외부 위탁 중심의 보존관리 방식 개선
 - 수장·보존 기능을 단순한 후방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개방형 수장고 등 관람객과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
 - 소장자료의 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디지털 콘텐츠 활용이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박물관의 연구성과가 시민의 관람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전면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과 기능의 확대가 실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인력체계를 함께 정비
- 전시·교육·연구뿐만 아니라 관광·홍보, 문화상품, 디지털 콘텐츠, 대외협력 등 확대되는 박물관 기능에 대응하여 조직 및 업무체계 재검토
 - 수장·보존, 전시기획, 교육·체험, 홍보·마케팅 등 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 전시·체험 콘텐츠와 뮤지엄숍·F&B 등 신규·확대 기능에 대한 운영방식을 리모델링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재개관 이후 운영상 혼선 최소화
 - 시설 재정비와 운영체계 개선을 병행하여 새롭게 조성된 공간과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활용·관리될 수 있는 운영기반 구축
- 수원화성박물관의 역할을 개별 박물관을 넘어 수원화성 권역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결하는 해석 거점으로 확대
- 화성행궁·열린문화공간 후소 등 인접 문화·관광시설과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연계하여 수원화성 권역의 콘텐츠 간 연결성 강화
 - 수원화성 관광동선에 박물관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수원화성문화제 등 주요 축제·행사와 박물관의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홍보를 연계
 - 박물관의 소장자료와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전시·공동 콘텐츠 개발·학술교류 등을 확대하고 박물관 내부의 연구·전시 성과를 수원화성 권역 전체로 확장
 - 관련 부서·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관광·문화·축제·홍보 분야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수원화성을 이해하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박물관의 위상 강화
- 전면 리모델링은 재정비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사업의 범위와 규모, 공간 재구성 방향 구체화 필요
-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및 조명 등 노후 기반설비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구조·설비의 성능과 안전성, 향후 개선 필요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 어린이체험실, 휴게·편의공간, 뮤지엄숍, 수장·보존공간 등 현재 공간구조에서 확충이 필요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간 재배치 및 기능별 적정 규모 설정
- 수장고의 위치·규모·수장률과 소장품 재질별 보존환경을 검토하고, 지류 중심의 소장품 특성을 고려한 보존처리 공간 및 전문기능 확충방안 마련
- 기본구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의 과업범위와 사업비를 구체화하여 전면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실행기반 확보

■ 시설과 콘텐츠를 기획·설계 단계부터 연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전면 리모델링 추진

- 건축·시설 부문은 공간구조 재편, 노후 기반설비 개선, 수장·보존환경 강화, 관람객 체류·편의공간 확충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재정비 추진
- 콘텐츠 부문은 수원화성과 정조 관련 소장자료 및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핵심 전시주제와 스토리라인을 재정립하고 상설전시·실감형 콘텐츠·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기획
- 건축설계와 전시기획을 초기 단계부터 연계하여 공간이 확정된 이후 콘텐츠를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시·체험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조와 관람동선 구현
- 공사 일정과 전시 제작·설치를 연계하여 시설 준공 이후 콘텐츠 구축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적인 재개관 추진

01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개관 이후 17년이 경과하면서 시설과 전시의 물리적 노후가 누적되고 있음

- 수원화성박물관은 2009년 1월13일 준공하고 같은 해 4월 27일 개관한 대지면적 21,023㎡, 연면적 5,634.72㎡,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공립박물관임
- 개관 이후 상설전시실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시 연출 기법과 매체 구성이 개관 당시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박물관 내부 진단에서도 노후 된 전시 시설과 연출 기법의 개선, 수장고 및 공조기 등 하드웨어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바 있음
 - 어린이체험실 및 교육 공간이 협소하고 상설전시실 역시 공간이 작아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이 제시됨
- 전시 시설뿐 아니라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건물 전반의 기반설비 역시 개관 이후 전면 정비된 바 없어, 관람객과 소장품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 관람 수요는 어느 정도 회복·확대되었으나 박물관의 위상은 그에 비례하지 않음

- 관람객은 2019년 345,364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코로나19 시기 급감하였고, 2023년 133,233명, 2024년 181,070명, 2025년 295,094명으로 뚜렷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음¹⁾
- 즉 관람객 규모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려우며, 문제는 방문의 성격과 기관의 위치에 있음
 - 다수의 방문이 수원화성 관람 과정에서 박물관에 잠시 들르는 경유형 방문에 머물러 있음
 -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다루는 전시·미디어·관광 콘텐츠가 외부에서 활발히 생산되고 있음에도 수원화성박물관이 그 해석의 기준점이자 원천 제공자로 인지되는 정도는 제한적

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기준

표 1-1 | 관람객 및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분		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수원박물관
2016년	계	325,053	471,073	350,411	92,814	110,232
	내국인	230,958	413,293	344,204	92,814	109,091
	외국인	94,095	57,780	6,207	-	1,141
2025년	계	-	696,860	295,094	125,126	79,281
	내국인	-	628,987	278,066	124,915	78,264
	외국인	-	67,873	17,028	241	1,017

※수원화성, 2022년 4월부터 입장료 폐지로 인해 미집계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기준

2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수원화성박물관의 현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박물관의 역할 재정립을 바탕으로 재정비 사업의 방향과 단계별 추진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첫째, 전시·공간, 위상·연계, 운영·인력, 연구·콘텐츠 등 박물관 운영 전반의 현황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현재의 시설 및 운영 여건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재정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함
 - 둘째, 국내·외 박물관의 전시·공간 재편, 콘텐츠 운영, 브랜딩·관광 연계, 시설·운영 개선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수원화성박물관의 현황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함
 - 셋째, 수원화성박물관을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가치를 해석·전달하는 거점이자 도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결하는 콘텐츠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비의 기본원칙과 전시·콘텐츠, 공간, 운영, 연계 등 부문별 추진과제를 제시함
 - 넷째,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반설비 개선과 콘텐츠 선행 개선에서 리모델링 및 본사업으로 이어지는 실행경로와 향후 사업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기반설비 안전성, 보존·수장 환경, 전시·콘텐츠, 공간 및 관람환경, 수원화성 관광 생태계 연계, 운영체계의 여섯 부문을 대상으로 함
- 건축 설계나 공사비 산정 등 기술적 영역은 후속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의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는 방향 설정과 우선순위 판단에 집중함
- 이 여섯 부문은 제2장에서 진단하는 전시·공간, 위상·연계, 운영·인력, 연구·콘텐츠의 4가지 측면과 대응되며, 제4장의 콘텐츠·공간시설 재정비 방향 및 제5장의 단계별 로드맵으로 구체화

□ 공간적 범위

- 박물관 건물 단위가 아니라 수원화성 일대의 해석 생태계를 범위로 설정함
 - 박물관 단독 최적화가 아니라 생태계 내 기능 분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원화성 성곽과 화성행궁, 열린문화공간 후소, 현릉원·화성 향교·용주사 등 성 밖 유적, 수원화성문화제 등 축제 공간을 포함함

□ 시간적 범위

- 진단의 대상 기간은 개관 연도인 2009년부터 2025년까지로 하며, 계획의 대상 기간은 2027년부터 2033년까지로 설정함
- 계획 기간은 단기(2027년), 중기(2028~2029년), 장기(2030년 이후)의 3단계로 구분함

2 연구방법

□ 문헌 및 통계 분석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제1호~제14호)를 기본 자료로 하여 조직·예산·관람객·소장품·전시·교육·홍보 현황을 분석함
- 「수원시 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 연구용역 보고서」(2025),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계획과 법제를 검토함

□ 전문가 자문

- 박물관 운영 분야 자문,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자문
- 자문회의 7건을 실시(서면 자문 5인, 대면 자문 6인)

□ 2차 자료 분석

- 「수원시 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행된 3개 박물관 관람객 의견조사 결과 중 수원화성박물관 관련 항목을 재분석함

□ 사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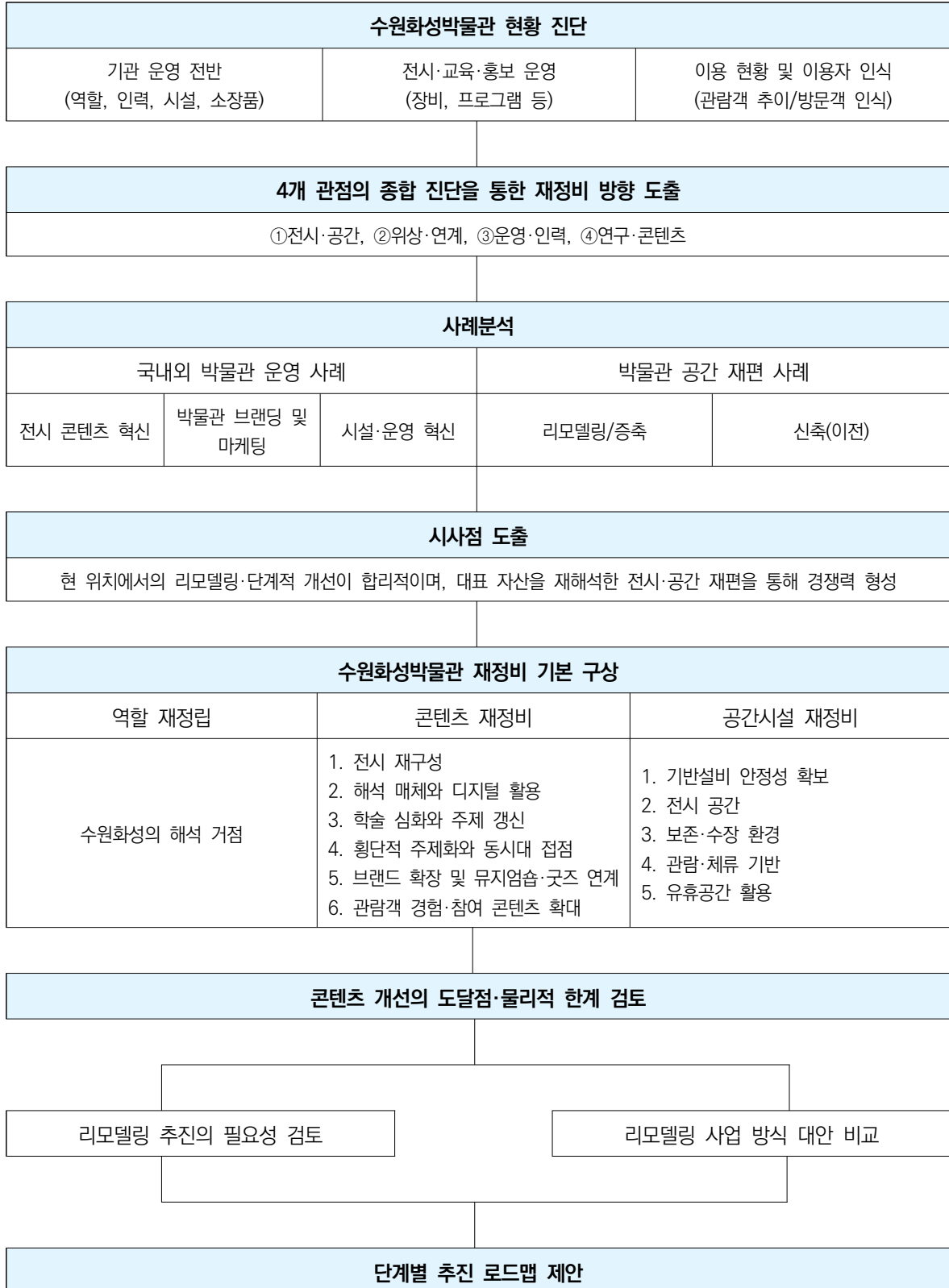
- 전시 해석, 브랜드·마케팅, 연구성과 활용, 운영·협력체계, 공간 재편의 관점에서 국내외 15개 사례를 조사함
- **운영 혁신** 9건(국립공주박물관, 대구간송미술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춘천박물관,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문화역서울284, 런던박물관×런던탑, 맨체스터 뮤지엄 파트너십)과 **공간 재편** 6건(부산시립미술관, 국립부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뮤지엄파크, 한밭교육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두 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사례는 문헌·보도자료·기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사업비·성과 등 비공개 항목은 미공개로 표기함

표 1-2 | 3C 분석

3C	평가요소	평가기준	수원화성박물관 적용	후속 분석 연계
자사 Company	기관목표, 자원 시너지 효과	- 기업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가? - 기존 브랜드의 마케팅 믹스 요소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수원화성·정조대왕·세계유산브랜드와 박물관 기능의 연계 가능성 검토 -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전시·교육 콘텐츠의 관광자원화 가능성 분석 - 수원화성·행궁동·미디어아트·지역축제와 연계한 콘텐츠 시너지 효과 검토 - 심층면접 및 운영 조사 기반으로 박물관의 핵심 경쟁 콘텐츠 도출	박물관 기능·콘텐츠 및 운영 현황 진단
고객 Customer	시장규모, 시장 성장률	- 해당 세분시장의 적합한 규모인가?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가? - 각 세분시장의 잠재 수요는 어느 정도인가?	- 일반 관광객·외국인 관광객·청년층 등 전략 관광객 세분화 분석 - 방문 목적, 체류패턴, 선호 콘텐츠, 몰입형 체험 수요 조사 - 수원화성 방문객의 박물관 유입 전환 가능성 분석 - 핵심 선호요인 및 우선 개선 요소 도출	관람객 특성 및 이용수요 분석
경쟁 Competitor	현재의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	- 현재의 경쟁사들이 공격적이고 강력한가? -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이 높은가?	- 국내외 역사·문화 박물관의 디지털·체험형 콘텐츠 도입 사례 분석 - VR·AR·MR·홀로그램 등 몰입형 전시 기술 활용 동향 파악 - 미디어아트·실감형 콘텐츠 기반 전시 경쟁력 비교 분석 - 수원화성박물관에 적용 가능한 체험형 콘텐츠 및 융복합 기술 요소 도출	국내외 사례 및 콘텐츠 개선방향 검토

3 연구 전개

□ 연구는 아래 전개로 수행되었음



02

수원화성박물관 현황 진단

제1절 기관 개요 및 운영 기반

1 • 설립 목적 및 역할

-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에 위치한 수원화성박물관은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중심부에 자리 잡아 접근성이 용이하고 모형과 관련 유물의 전시를 통해 화성 축성에 대한 전반을 이해하는 교육 목적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2009년 4월에 개관한 수원화성박물관은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우수성과 가치, 그리고 수원화성 축성과 신도시 수원 건설을 위한 정조대왕의 노력을 알리기 위하여 건립된 박물관임
- 시간적으로는 정조대 이후부터 근대 이전까지, 공간적으로는 수원화성 일대를 대상으로 하여 시간상·공간상의 정체성이 확고한 드문 사례에 해당함
- 한국의 많은 도시가 유사한 근대화 과정을 거친 것과 달리 수원은 화성의 존재로 인해 정조의 계획도시라는 명백한 차별점을 가지며, 수원화성박물관은 현재의 수원에 독자적인 역사적 정체성을 브랜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2-1 | 수원화성박물관 시설 현황 (단위: m²)

구분	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준공일자	개관일자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 창룡대로 21(매향동)	21,023	5,635	지하1층, 지상 2층	2009.1.13.	2009.4.27.

※건축물대장 기준 작성

※대지면적: 팔달구청과 하나의 대지를 공유 → 각 동마다 대지면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총괄표제부상 면적 기재

□ 수원시 3개 공립박물관 내에서의 위치

- 수원박물관이 근현대 수원의 역사를 조명하고 수원광교박물관이 동시대의 관심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문화의 장소로 기능하는 데 비해, 수원화성박물관은 정조대 이후~근대 이전의 화성 일대를 대상으로 함

표 2-2 | 수원시 3개 공립박물관 구분

구분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고박물관
시간적 범위	근현대	정조대 이후~근대 이전	동시대
공간적 범위	수원 전역	수원화성 일대	광고 및 기증자료
전시 중심 소재	수원 지역 역사, 근현대 수원 생활사, 서예	수원화성, 정조, 실학 중심	광고 지역의 유물, 생활사 및 올림픽문화, 일제침략사, 독도 등 기증유물 중심
수장고 면적	742.53㎡	728㎡	558.19㎡
소장유물	49,183점	8,175점	44,704점

자료: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제14호(2026); 수원시 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2025)을 토대로 재구성

2 • 조직·인력 및 예산

□ 조직 및 정원

- 1관 2팀(운영팀, 학예팀) 체제로 운영되며, 정원과 현원은 각각 20명임

표 2-3 | 수원화성박물관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5급	6급	7급	8급	9급	학예 연구사	임기제	공무직
수원화성박물관	20	1	1	2	2	1	3	4	6

축약직: 3(경비 2, 청소 1),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 예산

- 2025년 세출예산은 1,070,601천 원으로 2024년 1,036,711천 원 대비 33,890천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99,024천 원임
- 연간 세출예산의 상당 부분이 경상 운영비에 해당하여 전시 개편 등 자본적 투자를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임
 - 2025년 특별기획전 〈천년효행, 그 8일〉의 소요예산은 136,588천 원, 테마전 〈방화수류정〉은 12,938천 원 수준으로, 전시 사업 예산은 연간 기획전 운영에 대응하는 규모에 형성되어 있음

표 2-4 | 수원화성박물관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액	증감
세입예산	88,837	99,024	10,187
세출예산	1,036,711	1,070,601	33,890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 자원봉사 인력

- 2025년 자원봉사자는 47명(남 12명, 여 35명)으로 전시해설 26명, 어린이체험실 13명, 열린문화공간 후소 8명이 활동함
- 외국어 가능 자원봉사자는 17명(영어 7, 중국어 2, 일어 7, 기타 1)으로, 외국인 관람객 대응의 인력은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으나, 대응 및 매칭 체계가 없는 상황

3 · 공간 및 시설

□ 수원화성박물관의 총 연면적은 총 5,634.72㎡(대지면적은 21,023㎡)로, 주요 공간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야외공간으로 구성

- (지상 1층) 인포메이션,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실, 카페테리아(뮤지엄숍), 다목적강당, 물품보관실, 수유실, 사무공간
- (지상 2층) 전시실1(화성축성실), 전시실2(화성문화실)
- (지하1층) 수장고, 문화보존연구실
- (야외공간) 정조대왕의 태실, 화성성역의 과학기기(수원화성 축성 당시 사용한 거중기, 녹로, 유형거 등의 실사이즈 복제본), 수원의 목민관 선정비, 24시 무인주차장(36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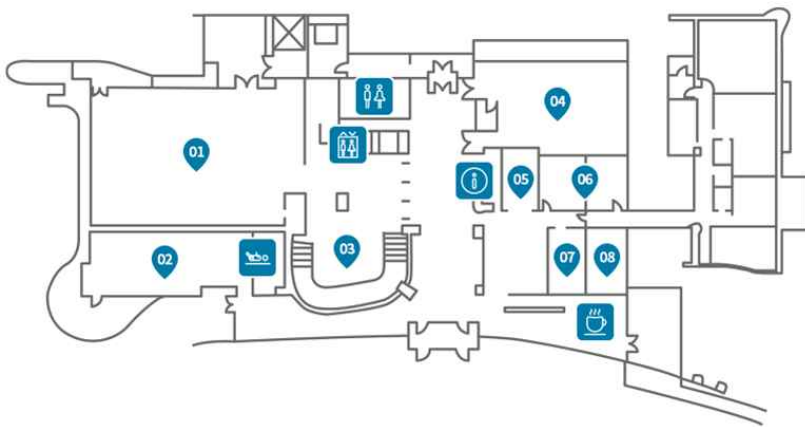
표 2-5 | 수원특례시 3개 박물관 현황

항목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고박물관
운영주체	수원특례시박물관사업소		
위치	영통구 창릉대로 265	팔달구 창릉대로 21	영통구 광고로 182
대지면적	40,339.7㎡	21,023㎡	8,492㎡
연면적	7,118.49㎡	5,635㎡	4,086.44㎡
전시면적	1,682.78㎡	1,299㎡	1,420.72㎡
수장고 면적	742.53㎡	728㎡	68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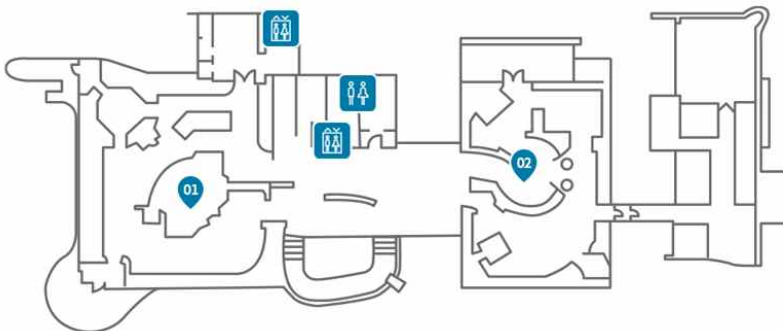
항목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소장유물		49,183점	8,111점	44,704점
관람객 수 (2025)	연 관람인원	50,003명	181,070명	95,370명
	일평균 관람인원	159명	578명	304명

자료: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제14호(2026); 수원시 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2025),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토대로 재구성

그림 2-1 | 수원화성박물관 시설 현황



〈1층〉 01. 기획전시실 02. 어린이체험실 03. 중앙전시홀 04. 다목적 강당 05. 물품보관실 06. 교육실 07. 자원봉사실 08. 직원회의실



〈2층〉 01. 화성축성실 02. 화성문화실

구분	세부시설(㎡)	면적(㎡)	면적(평)
		5,634.72	1,704.50
전시시설	기획전시실 337, 1전시실553, 2전시실 409	1,299	392
교육 및 연구시설	교육실 64, 세미나실(회의실) 32, 어린이체험실 179, 다목적강당, 150	425	127
편의시설	카페테리아(뮤지엄숍) 140, 휴대품 보관실 29	169	50
관리시설	관장실 37, 운영실 55, 학예팀84, 숙직실 35, 매표·안내소19, 자원봉사자실(경비실) 17	247	72
수장고	수장고(전시 포함)	728	220
문서고	예비실	142	43
기타	화장실, 복도, 계단 등	2,624	800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홈페이지 및 연보

4 • 소장품 및 수장

- 소장유물은 총 8,175점으로 기증 3,820점, 구입 3,460점, 위탁 6점, 이관 889점으로 구성됨
 - 기증유물 대부분은 정조의 충신 채제공과 사도세자의 부마 홍은위 정재화 가문 유물 등 정조시대 중요 인물과 관련된 유물로 기증유물 중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80% 이상)을 차지
 - 2025년에는 정조대 수원에서 치러진 시취의 답안지인 시권을 비롯하여 관련 유물 10점을 기증받음(정조가 직접 채점한 어고 시권)
 - 또한 수원화성 성내 출토 국가귀속 유물을 이관받으며, 수원 화성행궁 내부의 장춘각지에서 출토된 유물 11점과 이아터 추정 부지 출토 유물 10점 보유
 - 매년 공개 유물 구입을 진행하며 2025년도에는 수원화성, 정조대왕, 정조대 명신들 관련 유물 33점 구입

표 2-6 | 수원화성박물관 소장유물 현황

(단위: 점)

구분	계	2025	2024	2023	2022	2021 이전	기증자
소계	8,175	64	156	21	21	7,777	25
기증	3,820	10	59	-	-	3,751	24
구입	3,460	33	25	154	20	3,228	-
위탁	6	-	-	-	-	6	1
이관	889	21	73	2	1	792	-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 지정문화유산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은 7건 15점으로 『조선경국전』, 『무예제보』, 『경국대전』 권4~6, 박제가 고본 『북학의』와〈채제공 초상〉 3점 등이 이에 해당함
- 2025년 9월 박제가 고본 『북학의』가 보물로 지정되어 소장유물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음
- 이 밖에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11건 206점,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1건, 경기도 등록문화유산 1건 94점, 수원시 향토유산 2건 13점을 소장하고 있음

□ 학술 기반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탁·이관 유물을 제외한 모든 소장품의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기초정리·사진 촬영은 8,175점 전량에 대해 완료됨

- 유물 국역 및 해제 사업은 2009년 이래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조운형 간찰>과 <동국필총> 2권 49점에 대한 국역·해제가 이루어짐
- 학술대회와 학술총서 발간이 지속되고 있어, 2025년에는 학술대회 <을묘년, 8일간의 수원행차>를 개최하고 학술총서 제11권 『방화수류정과 누정문화』를 발간함
- 정조의 계획도시 화성이라는 시공간적 정체성 덕분에 지금까지 수십 건의 학술대회와 전시가 축적되었으며, 이는 다른 박물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보적 성과에 해당함

□ 수장 공간의 규모

- 수장고는 전실을 포함하여 728㎡이며 문서고(예비실) 142㎡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어, 연면적 5,634.72㎡의 약 15.4%가 수장 기능에 배분되어 있음
- 수장률(수장가능 공간 기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73.5%로 외형상 일정 수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장설비 유형별로는 공간 활용 여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소장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장대 추가 설치와 수장설비 재배치 등 공간 효율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수장 공간 확보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7 | 수원화성박물관 수장고 현황

구분	시설	면적(평)	비고
수장고	수장고(전실포함)	728㎡(220)	수장고 1 350㎡, 수장고 2 285㎡

[수장고 1] 350㎡(150평), 소장유물 보관

수장고 1	수장대	서화장	서랍장	합계
수량	56	2	10	68
칸수	272	6	81	359
사용공간	192	6	78	276
여유공간(칸)	80	0	3	38
수장률	70.5%	100%	96.2%	73.5%

[수장고 2] 285㎡(85평), 참고자료 복제품 보관

수장고2	수장대	모빌렉	합계
수량	20	14	34
칸수	71	33	104
사용공간	55	29	84
여유공간(칸)	16	4	20
수장률	77.4%	87.8%	80.7%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내부 자료

제2절 전시·교육·홍보 운영 현황

1. 전시 운영 현황

- 수원화성박물관은 정조 대왕과 세계 유산 수원화성을 주제로 유물 전시 및 역사적 이해를 높이는 전시 내용을 담아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운영하고 있음
 - 상설 전시는 화성축성의 과정과 신도시 수원 건설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화성축성실,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와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영에 관한 내용의 화성문화실로 운영됨
 - 기획 전시는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수원화성 축성 기념 전시, 정조대왕 테마 특별전, 문화유산 전시 등으로 운영됨
- 수원화성박물관은 문화유산 전달력 증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성인 대상의 전시 정규 해설은 오전 3회(10:00, 11:00, 12:00), 오후 3회(14:00, 15:00, 16:00)로 사전예약 없이 진행
 - 수원시박물관 앱(App)은 수원시가 운영하는 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수원광교박물관의 상설·야외전시 도슨트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시관 내 QR코드를 스캔하여 유물 해설을 제공
 - 전시 설명과 유물 정보가 담긴 리플렛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지원
 - 온라인 전시 ‘내 손안에 박물관’²⁾은 수원화성박물관 내 모든 공간을 아카이빙화하여 VR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전시 관람이 가능
 - 실시간 전시 상시 반영 불가. 현재 2023년 특별기획전 《평강 채씨 가문의 문장기들》 수록

1) 상설 전시

- 수원화성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화성축성 과정과 신도시 수원 건설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화성축성실, 그리고 정조대왕의 수원행차와 친위부대 장용영에 관한 내용의 화성문화실, 정조대왕과 세계유산 수원화성에 관련한 내용의 야외전시장으로 구성
 - 1층 로비에는 수원화성 축성 당시 모형, 정조대왕과 수원 화성에 관련된 영상물로 구성

2) 수원시박물관사업소와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업무 협약(2023.4.28.)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상생발전을 위해 실감형 메타버스 전시 콘텐츠를 구축(2023.11.13.)

그림 2-2 | 수원화성박물관 상설 전시 현황



화성축성실



화성문화실



야외전시장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표 2-8 | 수원화성박물관 상설 전시 현황

구분	화성축성실	화성문화실	야외전시장
전시 주제	• 조선후기 문화의 황금기, 영조-사도세자-정조의 시대 • 사도세자의 명예회복, 현릉원 조성과 용주사 창건 • 수원부 읍치 이전과 수원화성 축성 • 신도시 수원 건설과 대도시로서의 성장	• 1795년 정조대왕의 8일간 행차, 을묘년 수원행차 • 정조대왕의 충신, 번암 채제공 • 국왕의 친위부대 장용외영과 무예24기 • 수원화성의 방어체제와 병장기 • 일제강점기의 수원화성	• 강원도 영월 계족산에 조성된 정조대왕 태실 재현 • 녹로, 거중기, 유형거 등 • 수원화성 일대에서 수습한 성돌 • 수원유수와 수원판관 등의 선정비 10기
전시물	• 영조-사도세자-정조의 글씨 • 정조의 어필 서품 • 『화성성역 의궤』 • 축만제, 둔전, 시전 모형 재현	• 『번암선생집』의 초고본 • 목판본 • 조선사대부 문집 • 임금이 참여한 문집 편찬	• 정조대왕 태실(복제본) • 수원화성 축성기기(복제본) • 수원화성 성돌 • 수원목민관 선정비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2) 기획 전시

□ <표 2-9>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최된 기획 전시 현황을 정리한 것임

표 2-9 | 수원화성박물관 기획 전시 현황 (2021~2025년)

구분	전시명	기간	전시물	관람현황
2025	테마전 <방화수류정>	2025.5.22.~ 8.17.	『화성성역의궤』, 『덩니의궤』, 엽서, 책자, 기사 등 50여 점	59,179명 (1일 평균 778명)
	을묘년 수원행차 23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천년효행, 그 8일>	2025.9.23.~ 12.14.	국가유산 보물 『원행을묘정리의궤』와 총리대신 <채제공 초상> 등 70점	73,162명 (1일 평균 1,016명)
2024	틈새전 <성곽의 빛 수원화성>	2024.1.30.~ 2.25.	수원화성의 일출과 일몰, 달과 별을 볼 수 있는 사진 40점	10,180명
	틈새전 <이미지로 본 수원화성>	2024.3.12.~ 4.14.	『꼬레아에꼬레아니』,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일제강점기 사진엽서, 일원권, 백원권 지폐, 1960년대~현대 수원화성 우표, 수원화성 관광기념품 등 70점	11,360명
	테마전 <조선의 희비애락, 한 눈에 보다>	2024.5.23.~ 7.28.	국가유산진흥원 제작 실감영상 및 수원화성박물관 소장유물	33,588명 (1일 평균 579명)
	특별기획전 <임전필승! 조선의 무예서와 무예24기>	2024.9.26.~ 12.15.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무예제보』 등 무예서 및 병장기 120점	55,429명 (1일 평균 792명)
2023	수원유수부 승격 230주년 기념 테마전 <수원유수 납시오!>	2023.5.19.~ 8.6.	수원유수 부임행렬 그림 <화성전도> 등 총 55점	26,411명 (1일 평균 383명)
	수원유수부 승격 23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평강 채씨 가문의 문장가들>	2023.10.5.~ 2024.1.14.	초대 수원유수 <번암 채제공 초상>, 『평강채씨족보』 등 평강 채씨 가문의 기증유물 181점	43,201명
2022	2022년 수원화성박물관 테마전 <1950년대 수원, 전쟁의 상흔과 또 다른 시작>	2022.6.23.~ 8.28.	1950년대 수원화성 사진 및 관련 자료 50여점	22,141명
	정조대왕 탄신 270주년 기념 특별전 <독서대왕 정조의 글과 글씨>	2022.10.6.~ 2023.1.29.	정조대왕의 글과 글씨 등 총 180여점	43,821명
2021	2021 세계유산축전 기념 테마전 <위대한 기록과 수원화성>	2021.9.9.~ 10.31.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 『덩니의궤』 등	11,436명
	특별기획전 <사도세자의 부마, 흥은위 정재화>	2021.12.14.~ 2022.3.27.	흥은위 정재화 후손 기증유물 총 150여점	17,759명 (1일 평균 197명)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참고 및 연구진이 재구성하여 작성

3) 열린문화공간 후소 전시

표 2-10 | 수원화성박물관 열린문화공간 후소 전시 현황 (2021~2025년)

구분	전시명	기간	전시물	관람현황
2025	열린문화공간 후소전시 상반기 테마전 〈그림 속 수원화성〉	2025.3.25.~ 10.12.	〈화성전도병〉, 〈화성전도〉 인쇄물, 〈서성우렵〉, 〈한정품국〉, 〈서장대야조도〉, 〈화성부성조도〉 영인본 등 그림 15점	20,193명
	열린문화공간 후소전시 하반기 민속생활용품 테마전 〈성안 사람들의 살림살이 이야기〉	2025.10.30.~ 2026.4.12.	행궁동 주민 의식주 민속생활품 60여 점	6,063명
2024	열린문화공간 후소전시 테마전 〈후소의 옛 터, 양성관 가옥〉	2024.3.26.~ 2025.3.11.	양성관 가옥 출토 기와, 옛 사진, 〈기와이야기〉 등 10여 점	31,265명
2023	열린문화공간 후소전시 테마전 〈에필로그-어느 수원 연극인〉	2023.3.7.~ 8.13.	故김성열 기증유물, 회화 작품 등 70여점	14,648명
	열린문화공간 후소전시 테마전 〈자비대령화원 장한중, 수원에 오다〉	2023.9.12.~ 2024.3.10.	화원 장한중의 회화 〈책가도〉, 〈어개화첩〉, 〈화성행행도병〉, 『어수록』개정판 등 복제본 10여점 전시	15,617명
2022	열린문화공간 후소 테마전 〈자비대령화원, 이인문과 김득신〉	2022.3.8.~ 2023.2.19.	자비대령화원 이인문과 김득신의 회화 중 국립중앙박물관, 간송미술관 소장 궁중기록화, 산수화, 풍속화 등 복제본 17점	23,468명
	수원화성박물관 특새전 〈영상으로 보는 화성풍미(華城豐美)〉	2022.4.29.~ 5.29.	세계유산 수원화성 관련 영상 및 전문 사진작가 작품	15,421명
2021	열린문화공간 후소 테마전 〈조선의 화가, 김홍도〉	2021.2.5.~ 2.27.	〈규장각〉, 〈호귀응렵〉, 〈마상청앵〉 등 김홍도의 작품 복제본 18점	15,796명
	수원화성박물관 특새전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 가요〉	2021.5.4.~ 7.25.	교육 프로그램 결과 성과 공유	11,121명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참고 및 연구진이 재구성하여 작성

4) 전시 설비 및 장비

표 2-11 | 전시유물 및 설비 현황

(단위: 점, 개, 대)

구분	전시유물		전시환경				전시장비			
	대여유물 전시수량	소장유물 전시수량	조습제		항균제	온습도계	프로젝터	키오스크	TV	기타
			Full Type	Half Type	Bio-Zone Pro		설비	설비	설비	설비
화성문화실	1	38	12	2	14	6	1	1	5	0
화성축성실	3	112	8	7	15	3	0	0	4	0
기획전시실	0	91	0	5	5	0	1	0	0	0
총 수량	4	241	20	14	34	9	2	1	9	0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표 2-12 | 전시실 별 전시장비 활용 현황

구분	설비 별 활용 현황
화성문화실	• 프로젝터: 혜경궁 홍씨 봉수당진찬연 영상(국립국악원) • TV1: 채제공 초상화 작화 영상 • TV2: (상단) 무예 24기 시연, (하단) 무예도보통지 • TV3: 서장대성조도 등 정조 군사훈련 지휘 영상 • TV4: 근대 수원화성 사진 • 키오스크: 무예24기 시연 및 무예도보통지
화성축성실	• TV1: 현릉원 영상 • TV2: 용주사 영상 • TV3: 수원화성 축성 영상 • TV4: 화성행궁 항공촬영 영상
기획전시실	• 프로젝터: 한국전쟁과 수원화성 영상 • TV: - (변동)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2 • 교육 운영

□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성인, 청년, 기관을 통한 단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도 기준 교육 프로그램 참가인원은 총 39,586명으로 집계

표 2-13 | 2025년도 수원화성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추진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프로그램	기간	개최(회)	수강인원(명)
성인교육	인문교양 강좌 〈정조와 함께 하는 봄, 그리고 여름〉	2025.4.3.~6.19.	9	357
	해설과 함께 걷는 수원화성 답사	2025.4.22.~5.13.	3	104
	느릿조선평수원화성 “조선의 시간으로 나를 돌보다”	2025.4.~12.	9	1,865
	특별기획전 연계특강	2025.11.26. 2025.12.3.	2	84
	열린문화공간 후소 성인교육	2025.4.15.~6.17.	8	203
	화성행궁 현판의 모든 것	2025.11.4.~11.25.	4	97
	오주석의 서재 인문학 특강 〈미술사 전문가들의 명서〉	2025.11.6.~11.20.	3	137
어린이교육	원리로 이해하는 수원화성 축성	2025.1.~11.	첫째/둘째주 토요일	1,384
	동화책으로 배우는 우리의 역사 (비대면)	2025.1.~11.	넷째주 금요일	245
	박물관과 학교 연계 교육	2025.3.~11.	-	354
	방학교육 〈함께 이해하는 세계유산〉	겨울방학/여름방학	-	1,651
	박물관 옆 역사문화 탐방	2025.3.~11.	넷째주 토요일	357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 함께 알아보기	2025.12.	285	7,381
	열린문화공간 후소 가족 및 청소년 교육 : 전시연계교육	2025.4.~6. 2025.9.	45	313
	열린문화공간 후소 가족 및 청소년 교육 : 기관단체교육	2025.8.~9.	3	38
어린이체험실 운영		2025.1.~12.	-	25,153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참고 및 연구진이 재구성하여 작성

□ 수원화성박물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참가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인 교육보다 어린이교육 집계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음

○ 코로나19 기점(2021~2022년)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동시 운영

- 동일시기에 수원화성박물관 공식 블로그와 수원시 계정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교육 자료를 게시하여 성인교육, 어린이교육 추진함. 이에 대한 집계는 조회수(회)로 집계됨

○ 어린이체험실은 2023년도부터 집계됨

그림 2-3 | 수원화성박물관 대면 교육 참가인원 현황(2021년~2025년)

(단위: 천명)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참고 및 연구진이 재구성하여 작성

표 2-14 | 수원화성박물관 연도별 교육 프로그램 참가인원 집계(2021~2025년)

(단위: 명, 회)

구분	성인교육			어린이교육		어린이체험실
	대면	비대면	온라인	대면	비대면	
2025년	357명 104명 1,865명 84명 203명 97명 137명	-	-	1,384명 354명 1,651명 357명 7,381명 313명 38명	245명	25,153명
	2,847명	-	-	11,478명	245명	25,153명
2024년	72명 630명 1,000명 148명 90명 31명	-	-	1,356명 360명 1,640명 345명 9,570명 215명	380명	24,681명

구분	성인교육			어린이교육		어린이체험실
	대면	비대면	온라인	대면	비대면	
	32명 80명			45명		
	2,083명	-	-	13,531명	380명	24,681명
2023년	356명 186명 120명 73명 2,200명	-	6,300회	672명 5,134명 1,879명 334명 313명 95명 120명 300명 95명	230명	13,253명
	2,935명	-	6,300회	8,942명	230명	13,253명
2022년	930명 143명	554명	675회 903회	598명 420명 126명 110명	489명 5,497명 790명	-
	1,073명	554명	1,578회	1,254명	6,776명	-
2021년	450명	60명	978회 9,269회 1,198회	-	420명 6,784명 160명 131명 160명	-
	450명	60명	11,445회	-	7,655명	-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참고 및 연구진이 재구성하여 작성

3 · 홍보 운영

- 수원화성박물관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중심의 홍보 성과가 확대되는 추세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스팅수, 홈페이지 방문자수, 블로그 방문자 수, 보도자료로 집계
- 2024년부터는 박물관 소식 월별 포스팅수, 홈페이지 월별 조회수, 블로그 월별 조회수, 페이스북 월별 조회수, 인스타그램 월별 좋아요수, X 월별 조회수, 보도자료로 집계

표 2-15 | 수원화성박물관 연도별 홍보 현황(2021~2025년)

(단위: 건, 명)

구분	포스팅수 (건)	홈페이지 방문자수 (명)	블로그 방문자수 (명)	보도자료 (건)
2025년	-	-	-	18
2024년	-	-	-	12
2023년	96	96,004	10,658	11
2022년	95	84,319	7,600	13
2021년	154	61,269	18,233	14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주) 2024년부터 홍보현황 목록 변동으로 인한 집계 내역 확인 불가

표 2-16 | 수원화성박물관 연도별 홍보 현황(2024~2025년)

(단위: 건, 회)

구분	박물관 소식 월별 포스팅수 (건)	홈페이지 월별 조회수 (회)	블로그 월별 조회수 (회)	페이스북 월별 조회수 (회)	인스타그램 월별 좋아요수 (회)	X 월별 조회수 (회)
2025년	263	353,772	16,183	14,097	1,543	32,497
2024년	153	148,168	20,837	2,545	47	6,469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제공

표 2-17 | 대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구분	체결 기관
2014년	• 일본 타케나카 도구박물관
2016년	• 사)역사문화연구소, 경기대학교 행복교육사업단
2018년	• 주)인스에듀테인먼트
2019년	• 남창초등학교
2020년	• 실학박물관
2022년	•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문화재단
2023년	• 경기건축가협회, 주) OBS, 조계종 수원사,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예천박물관
2024년	• 사) 화성연구회
2025년	• 경기콘텐츠진흥원,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제3절 이용 현황 및 이용자 인식

1. 운영 조건 및 관람객 추이

□ 수원화성박물관은 부분 무료화 시행 중이며, 2026년 하반기 중 전체 무료화 계획 중임

○ 2025년 5월 기준 관람요금은 성인 2,000원, 청소년 및 군인 1,000원

• 어린이·노인 무료, 수원시민 25% 할인, 수원시민 다자녀(2인 이상) 동반 입장 무료

○ 2026년 8월 기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중으로 2026년 하반기 중으로 전면 무료화 예정

□ 수원화성과 행궁동과 인접해 수원시 관내 박물관 중 방문 수요가 높으며, 2025년도 기준 관람객 현황은 288,662명으로 집계됨

○ 2009년부터 2025년까지의 관람객은 총 3,523,423명으로, 연평균 207,260명임

○ 코로나 전인 2018년 368,569명 최고 관람객 기록하였고, 코로나 시기(2020~2022)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5년 288,662명 동원

표 2-18 | 수원화성박물관 관람객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유료		무료		타기관 통합매표
		일반	청소년, 군인	일반	노인, 어린이 등 기타	
2009	85,249	16,400	4,592	46,221	18,036	0
2010	90,985	27,093	7,866	7,287	48,737	2
2011	171,956	25,255	17,131	7,111	37,007	85,452
2012	201,093	26,681	18,286	8,487	47,502	100,137
2013	218,789	28,492	16,068	8,422	36,342	129,465
2014	207,139	25,267	12,072	19,306	50,166	100,328
2015	255,557	17,449	6,784	35,965	119,039	76,320
2016	358,721	23,261	2,116	204,735	20,169	108,440
2017	332,403	9,475	3,386	87,640	133,385	98,517
2018	368,569	8,705	5,208	76,539	157,576	120,541
2019	348,250	12,212	6,361	65,100	151,502	113,075
2020	34,279	1,968	357	14,715	12,954	4,285
2021	52,536	0	0	36,709	15,825	2

2022	127,818	0	0	81,265	46,553	0
2023	164,990	19,864	1,487	70,894	72,485	260
2024	216,427	29,633	2,198	76,062	104,433	4,101
2025	288,662	25,864	8,329	88,829	159,318	6,322

※ 2020~2022년은 코로나19 시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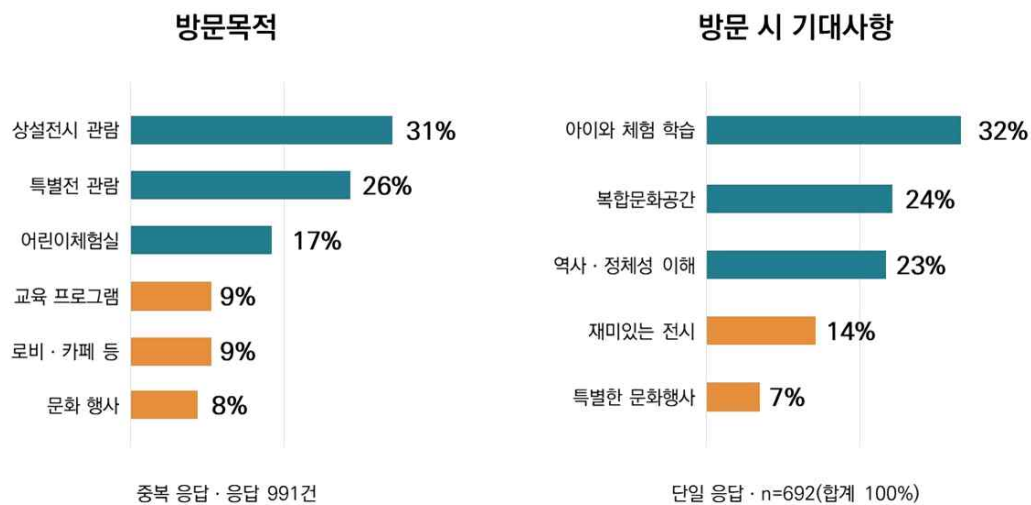
자료 :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2 • 방문객 인식

□ 수원화성박물관 방문객 방문목적, 기대 및 만족도³⁾

- 2025년 이용자 조사에서 방문 목적은 상설전시 관람 31%, 특별전 관람 26%, 어린이체험실 이용 17%이 주요 항목으로, 일반 전시 관람과 가족 단위 체험 수요가 복합적으로 존재함 (중복응답)
- 방문 시 기대한 점은 ‘아이와 함께하는 체험 학습’ 32%,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24%,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 23% 순임

그림 2-4 | 수원화성박물관 방문 목적 및 방문 시 기대사항



자료: 수원시 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 연구용역 관람객 의견조사(2025)

- 참여하고 싶은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소장 유물 연계 체험활동’ 27%, ‘전통문화 체험(서예·한복·공예 등)’ 25%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체험·교육·문화행사 다양화’ 33%, ‘현대적인 전시 연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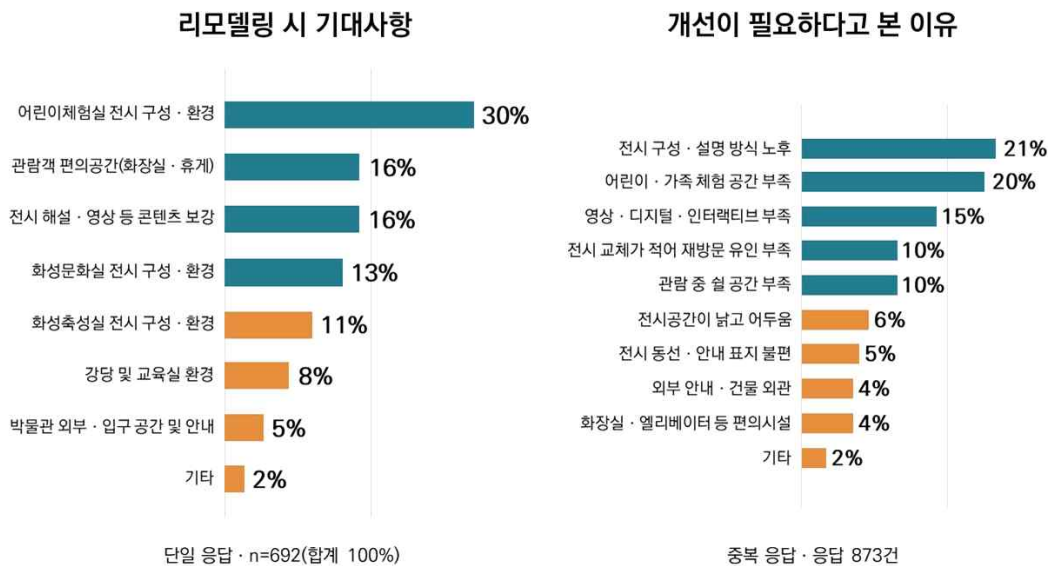
3) 수원시(2025), 수원시 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 연구용역, 관람객 의견 조사(수원화성박물관 방문객 692명 대상).

체험 요소' 17%,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 17% 순으로 응답이 분포함

- 박물관 방문 만족도에서는 '매우만족(54%)'과 '만족(36%)'으로 만족을 표한 응답이 90%를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룸
- 그러나 리모델링 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어린이체험실 전시 구성 및 환경(30%)'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 '관람객 편의공간(화장실, 휴게공간 등)(16%)'와 '전시 해설 및 영상자료 등 콘텐츠 보강(16%)'이 그 뒤를 이었음
- 그 이유로는 '전시 구성이나 설명 방식이 오래되고 흥미롭지 못함(21%)'과 '어린이 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공간 부족(20%)'이 높게 나타남 (중복응답)

그림 2-5 | 수원화성박물관 리모델링 시 개선사항 및 개선 필요 이유

(단위: %)



자료: 수원시 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 연구용역 관람객 의견조사(2025)

□ 수원화성 방문객 분석⁴⁾ 비교

- 수원화성 관광객은 개별여행 중심으로 방문하고 있어, 박물관을 기존 단체관광 중심의 시설이 아닌 개별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관광거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수원화성 방문객의 개별여행 비율은 내국인 90.5%, 외국인 92.7%로 내·외국인 모두 90% 이상을 차지함
 - 특히 외국인은 20대 이하 42.0%, 30대 24.1%로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 자유여행 과정에서 쉽게 접근하고 짧은 시간에도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관람환경 조성이 중요함

4) 수원문화재단(2025), 2025 수원화성 관광객 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이에 따라 정해진 해설이나 단체관람에 의존하기보다 다국어 안내, 직관적인 전시동선, 디지털 해설 등 개별관람을 지원하는 전시·안내체계 강화가 요구됨

그림 2-6 | 수원화성 관람객 응답자 특성-연령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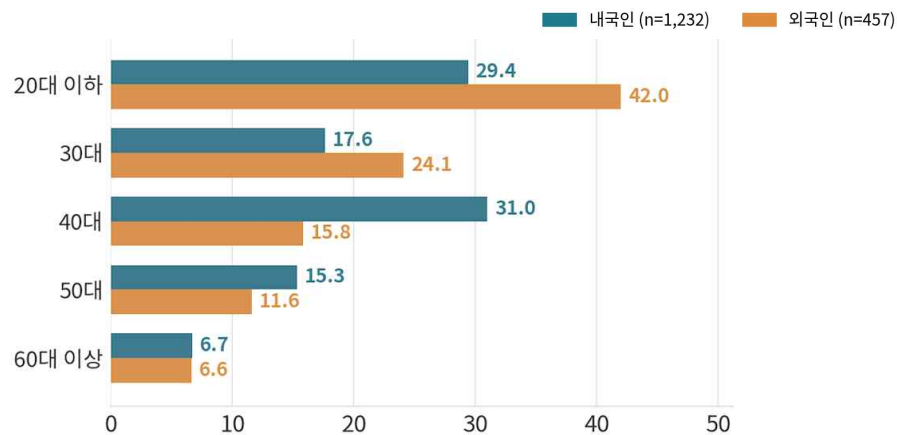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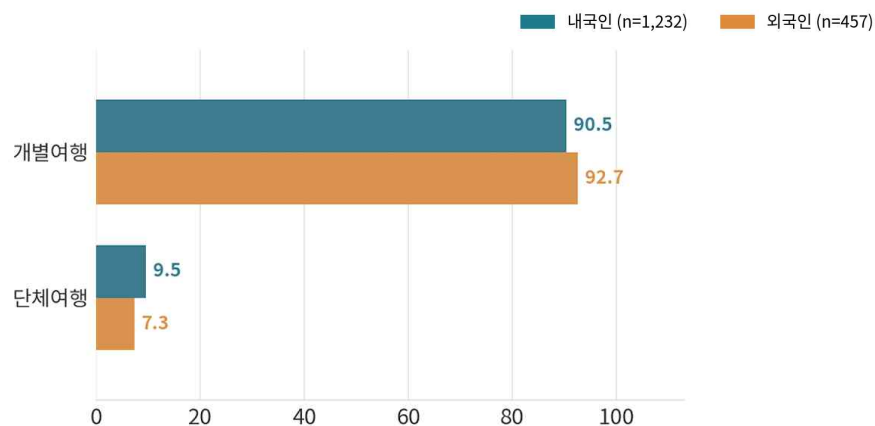


그림 2-7 | 수원화성 관람객 응답자 특성-여행형태

(단위: %)



- 수원화성 방문객의 이동 특성과 방문 동기를 고려하여, 주요 관광동선과 연계한 박물관 접근성 및 세계유산 해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국인은 자가용(65.2%) 중심인 반면, 외국인은 버스(42.2%), 철도(16.9%), 지하철(15.8%) 등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아 방문객 특성에 따른 박물관 접근·안내체계의 차별화가 필요함
- 내·외국인 모두 '관광명소(세계문화유산) 방문'을 수원화성 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특히 외국인은 '교육적 의미'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수원화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심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가 확인됨

그림 2-8 | 수원화성 방문시 이용 교통수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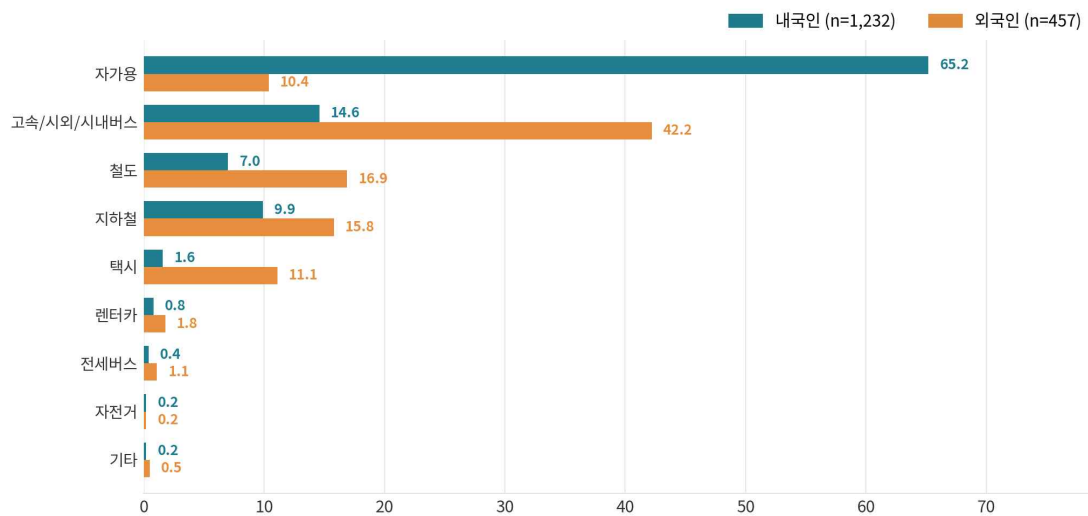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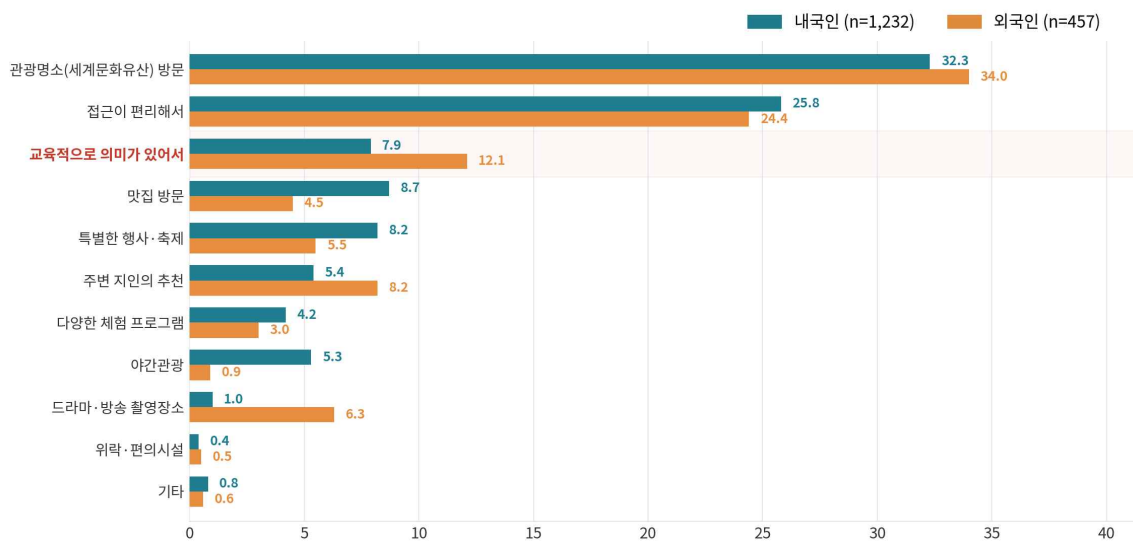


그림 2-9 | 수원화성을 여행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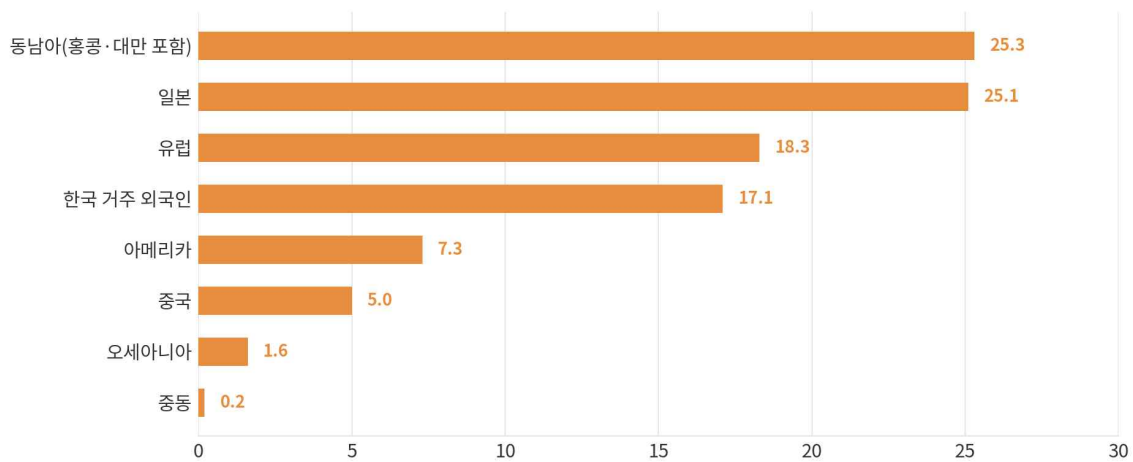


○ 외국인 관람객의 다양한 국적권을 고려한 보편적·다층적 해석체계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 관람객은 동남아권 25.3%, 일본 25.1%, 유럽 18.3%, 한국 거주 외국인 17.1% 등으로 구성되어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는 특성을 보임
- 이에 따라 특정 언어권에 한정된 안내 확대보다는 핵심 콘텐츠의 다국어 제공과 함께 이미지·영상·모형 등 언어 의존도가 낮은 전시매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2-10 | 외국인 관람객 국적 권역

(단위: %)



□ 수원화성박물관 방문객 조사와 수원화성 관광객 조사를 종합했을 때, ① 체험·체류 기능 강화, ② 전시 콘텐츠 및 전달방식 현대화, ③ 개별관광객 중심의 접근·관람체계 구축, ④ 세계유산 해석거점 기능 강화 필요

- 전시 관람 중심에서 체험과 체류를 함께 제공하는 박물관으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상설·특별전 관람뿐 아니라 어린이 체험학습, 휴식·여유에 대한 기대가 높아 전시·체험·휴게 기능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재구성이 필요함
- 관람객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전시 콘텐츠와 전달방식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방문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전시 구성과 설명 방식의 노후화 및 콘텐츠 보강에 대한 요구가 함께 확인되며, 소장유물 연계 체험, 전통문화 체험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면서 현대적 전시연출과 영상·체험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향이 요구됨
- 개별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방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광거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직관적인 관람동선, 디지털 해설, 다국어 안내 등 개별관람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화성 주요 관광동선 및 대중교통 거점과 박물관을 연결하여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가치를 다양한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해석거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의 교육적 방문 수요와 다양한 국적 구성을 고려하여 다국어 정보와 이미지·영상·모형 등 직관적인 전시매체를 활용한 보편적·다층적 해석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4절 진단 및 종합

표 2-19 | 수원화성박물관 진단 결과 종합

구분	핵심진단	주요내용	재정비 방향
① 전시·공간	관람객 중심의 전시 및 공간 재구성 필요	• 핵심 주제 중심의 상설전시 스토리라인 및 관람동선 재구성 • 영상·미디어·체험형 콘텐츠의 적정 활용과 유물 설명체계 보완 • 층고 등 구조적 제약을 고려한 전시 배치·밀도·집기 개선 • 어린이체험실 개선 및 휴게·독서·식음 등 체류공간 확충 • 뮤지엄숍의 관람 종료 동선 연계 및 공간 활용 개선 • 조명·조도 및 노후 전시시설의 단계적 개선 • 소장품 증가에 대응한 수장공간 확충 및 보존환경 개선	‘보는 박물관’에서 이해하고 머무르는 박물관으로 전환
② 위상·연계	수원화성의 핵심 해석거점으로서 대외적 역할 강화 필요	• 화성행궁·연무대·방화수류정, 화성어차·성곽길 등 주요 관광동선과 박물관 연계 • 관광 홈페이지·지도·답사코스 등 온·오프라인 안내체계 강화 • 수원화성문화제 등 대표 축제와 전시·체험·홍보 프로그램 연계 • 유관기관 상품 입점 및 소장품·연구성과 기반 자체 문화상품 확대 • 지역 작가·디자이너 및 유관기관과의 상품개발·브랜드 협업 강화 • 소장자료·연구성과의 외부 콘텐츠 활용 및 역사 검증·해석 자문·공동기획 확대 • 국내외 세계유산·성곽·도시유산 관련 기관과 공동전시·학술교류·콘텐츠 교환 확대	‘수원화성 옆 박물관’에서 수원화성을 연결하고 확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위상 강화
③ 운영·인력	확대되는 박물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보강 필요	• 전시·연구·교육·홍보·관광·문화상품·대외교류 등 확대 기능에 대응한 운영체계 정비 • 홍보·마케팅 전담기능 강화 및 홍보교육팀 등 전담조직 구성 검토 • 관람객 유입, 축제·이벤트, 문화상품·브랜드 협업, 국내외 교류 등 전략적 홍보기능 강화 • 교육·체험 및 시설대관 수요 증가에 대응한 운영인력 확보 • 연구·전시 과제의 2~3년 단위 추진 및 담당업무·예산의 연속성 확보 • 기능별 전문인력의 단계적 충원 및 업무분담 체계화 • 핵심 전문역량의 직접 수행과 외부 전문기관 협업·위탁 영역 구분	시설 재정비와 함께 지속가능한 운영·전문인력 체계 구축
④ 연구·콘텐츠 확장	축적된 연구자원의 새로운 해석과 콘텐츠 확장 필요	• 정치사·건축사 중심에서 음식·음악·복식·의례·생활문화 등으로 전시 주제 확장 • 한식·공연·패션 등 K-컬처와 연계한 동시대적 재해석 및 협업 전시 추진 • 특정 유물·기록·인물을 활용한 소규모·주제형 전시 등 다양한 전시 시도 • ‘조사·연구 → 학술발표 → 전시’로 이어지는 중장기 콘텐츠 기획체계 구축 • 학술총서·유물 해제·원문자료 등 아카이브의 디지털 공개 및 활용 확대 • 온라인 전시 등 연구성과의 시민·연구자 접근성 강화	‘축적하는 연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콘텐츠 기반으로 확장

1. 전시·공간

□ 전시의 구조와 관람 동선을 보다 명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설전시는 수원화성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자료와 콘텐츠를 다루고 있으나, 관람객이 전시 전체의 흐름과 핵심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와 동선을 보다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요구됨
- 층별·구역별 전시 주제를 구분하고 ‘정조’, ‘수원화성 축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복원 과정’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전시 스토리라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전시실 입구별 주제와 관람 포인트, 박물관 전체 배치도와 권장 관람 동선 등을 제공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지원하는 안내체계의 보완이 요구됨

□ 전시매체와 설명체계를 보완하여 콘텐츠의 전달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진과 패널 중심의 기존 전시에 영상·미디어 콘텐츠를 적절히 병행하여 역사적 사건과 인물, 수원화성 축성 과정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보다는 유물과 기존 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형 영상, 미디어아트, 체험형 콘텐츠의 기능을 구분하고 관람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별 유물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해당 유물이 수원화성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와 인물·사건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 공간의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관람과 체류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간 활용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전시공간은 층고 등 건축적 제약이 있어 전면적인 구조 변경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 공간구조를 전제로 전시 배치와 관람 동선을 효율화하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간별 특성과 전시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전시 밀도를 조정하고, 가벽·전시집기 등의 활용을 통해 공간별 기능과 전시 주제를 구분하는 등 제한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어린이체험실은 이용자 조사에서 인상 깊은 공간(27%)과 아쉬운 공간(22%)에 동시에 지목되는 등 이용 수요와 개선 요구가 함께 확인된 만큼, 공간 규모와 이용 회전율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 휴게·독서·식음 등 관람객의 체류를 지원하는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뮤지엄숍은 관람 종료 동선과 연계하여 문화상품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와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후화된 전시환경을 개선하여 전시 효과와 관람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수장공간을 확충하고 보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후 전시시설과 장식 요소의 기능 및 활용도를 함께 점검하고, 불필요한 설치물과 오래된 모형·인형 등의 비중을 조정하여 핵심 유물과 콘텐츠에 대한 관람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관 이후 예산 등의 제약으로 조도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조명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현 전시환경과 조명설비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단계적인 개선이 요구됨
 - 전시물의 재질과 특성, 공간별 전시 목적을 고려하여 적정 조도를 확보하고, 전시물의 가독성과 공간별 연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명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수장고는 소장품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향후 수장 여력이 점차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인 소장품 증가 추이를 고려한 수장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장대, 서화장 등 세부 수장공간 별 수장 현황과 여유 공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한 전체 수장률 뿐 아니라 유물의 재질·형태·규모별 보관 여건을 고려하여 공간을 재배치하고 추가 수장공간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 개관 이후 시설과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장공간의 확충과 함께 온·습도, 공조, 조도 등 보존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개선 필요
 - 향후 수원화성 관련 유물의 지속적인 수집·기증·기탁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순 보관공간의 확대를 넘어 소장품의 안정적인 보존·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장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

2 • 위상·연계

□ 수원화성 관광동선 및 대표 축제와 박물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화성행궁, 연무대, 방화수류정 등 주요 관광거점과 자전거, 화성어차, 성곽길 등 다양한 관광 동선에 박물관을 자연스럽게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원 관광 홈페이지, 관광지도 및 답사코스 등에 박물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요 관광거점과 박물관을 연결하는 안내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수원화성문화제 등 대표 축제와 연계하여 기획전시뿐 아니라 박물관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해설·체험, 공동 홍보 콘텐츠 등을 확대하여 박물관이 축제 및 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상품을 박물관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확산하는 핵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화상품의 종류와 구성이 제한적인 만큼, 박물관의 정체성과 수원화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문화상품의 종류와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수원문화재단 등 유관기관에서 개발·판매하고 있는 수원화성, 정조, 행궁 등 관련 문화상품 가운데 박물관의 성격과 부합하는 상품을 선별하여 입점·판매함으로써 상품 구성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방문객의 선택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과 전시·연구성과를 활용한 자체 문화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디자인 공모전, 지역 작가·디자이너 및 문화상품 제작업체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상품 개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관광과, 홍보기획관 등 기존 문화상품 개발·유통 경험을 보유한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상품 기획·제작부터 판매·홍보까지 연계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박물관 단독 개발에 따른 비용과 운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상품 개발 시 단순히 수원화성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박물관 소장품과 연구성과 → 역사적 스토리 발굴 → 디자인·상품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여 다른 관광기념품과 차별화된 박물관 고유 상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전문적 해석·교류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원화성과 정조, 화성 행차 등을 소재로 한 전시·방송·영상·관광 콘텐츠가 다양한 기관과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박물관이 축적해 온 소장품·연구성과·역사정보를 기반으로 수원화성 관련 콘텐츠의 원천자료 및 전문적 해석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소장 자료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디지털화하여 외부 기관과 콘텐츠 제작자의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자료 제공을 넘어 역사적 사실 검증, 해석 자문, 공동기획·연구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요구됨
- 기존 협력 기반을 활용하여 세계유산 관련 기관 간 공동전시, 학술교류, 콘텐츠 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아시아 및 세계의 성곽·도시유산 관련 박물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수원화성 관련 콘텐츠의 역사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수원화성박물관을 세계유산의 가치를 축적·연구·해석하고 국내외로 확산하는 전문적인 지식·교류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3 • 운영·인력

□ 박물관 기능 확대에 대응한 운영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함

- 박물관의 기능이 전시와 소장품 관리 뿐 아니라 조사·연구, 교육, 디지털 아카이빙, 관광 연계, 홍보·문화상품 및 국내외 교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재정비 이후 확대될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조직과 인력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홍보 관련 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에는 단순한 온라인 홍보를 넘어 수원화성 관광동선과 연계한 방문객 유입, 축제·이벤트 연계, 문화상품 및 브랜드 협업, 국내외 기관 교류 등을 기획·추진하는 홍보·마케팅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원박물관의 홍보교육팀과 같이 홍보와 교육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관광·마케팅·대외협력 등 확대되는 업무 수요에 따라 기능을 세분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 어린이체험실을 비롯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수요와 함께 다목적강당 및 교육실의 시설 대관도 2023년 82건에서 2025년 178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기획·운영과 공간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재정비가 시설과 콘텐츠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박물관 운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시·연구·교육·홍보·관광연계 등 기능별 업무량을 고려한 운영인력의 단계적 충원과 전문성 확보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인 연구·전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조사·연구 성과를 전시와 콘텐츠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년도 사업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주제 선정부터 조사·연구, 학술행사, 전시기획까지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업무 추진체계가 필요
- 주요 연구·전시 과제가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담당자 변경이나 개별 사업 종료에도 연구 및 전시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별 추진과정과 성과를 기록·공유하는 내부 업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확대되는 기능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의 역할과 업무분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설전시 개편, 새로운 기획전시 개발,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체험 프로그램, 관광·축제 연계, 홍보·문화상품 및 국내외 교류 등이 확대될 경우 기존 업무와 함께 새로운 운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인력구성과 업무분담을 토대로 전시기획, 조사·연구, 소장품 관리, 교육, 홍보·마케팅, 디지털 콘텐츠 등 기능별 업무 수요와 전문인력의 역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인력 확대보다는 박물관이 직접 확보해야 하는 핵심 전문역량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위탁이 가능한 영역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 연구·콘텐츠의 확장

□ 수원화성의 역사적 자원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전시 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조와 수원화성의 정치사·건축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기존 접근에서 나아가 당시의 생활과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세부 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기록자료를 바탕으로 왕실 잔치와 행차에 나타난 음식, 음악, 복식, 의례, 이동, 공간 등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포함된 다양한 요소를 독립적인 전시 주제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전통음식과 한식, 궁중음악과 공연, 전통복식과 패션 등 역사적 자원을 동시대 문화와 연결하고, 한식·음악·패션·콘텐츠 등 K-컬처와의 접점을 활용한 기획전시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관람층으로 콘텐츠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기획전시에 한정하지 않고 특정 유물·기록·인물·생활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소규모·주제형 전시를 병행하여 새로운 전시 주제를 지속적으로 실험할 필요가 있음

□ 아카이브의 공개와 활용을 확대하여 연구자원을 콘텐츠 생산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유물 목록화, 해제, 홈페이지 등록 등 지속적으로 축적된 아카이빙 성과를 연구·전시·교육 및 시민 이용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유일본 문서와 비매품·절판 발간자료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과 소장품 관리기준을 고려하여 디지털 공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술총서, 유물 해제, 원문자료, 관련 전시 콘텐츠를 상호 연결하고 온라인 전시 ‘내 손안에 박물관’ 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축적된 자료가 새로운 연구와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축적된 학술성고가 전시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이후 국역·해제 사업을 지속하고 학술총서를 제11권까지 발간하는 등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어, 이를 상설전시의 내용 보완과 새로운 기획전시의 주제 발굴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평강 채씨 소장품 조사 → 변암 채제공 학술대회 → 〈변암 채제공〉(2013) 및 〈평강 채씨 가문의 문장가들〉(2023) 전시로 이어진 사례와 같이 ‘조사·연구 → 학술발표 → 전시’가 연계되는 중장기적인 콘텐츠 기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2~3년 단위의 조사·연구·전시 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총서 역시 관련 주제가 후속 연구와 전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03

사례 연구

제1절 국내외 박물관 운영 사례

1 전시 콘텐츠 혁신 사례

(1) 국립공주박물관 - 〈무령왕릉 실감콘텐츠〉

구분	내용
기관명(위치)	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 공주시)
콘텐츠명	디지털 실감 영상 〈무령왕릉 1,448년간의 이야기〉, 웅진백제실 무령왕릉 재현 전시
콘텐츠 유형	몰입형 및 인터랙티브, 6면 프로젝션 매핑과 터치형 인터랙션
운영 시기	2021년 7월 6일 디지털 실감 영상관 개관, 상설 운영
사업 금액	약 8억(문화체육관광부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사업, 국비)
사업 규모	디지털 실감 영상관 1개관, 실감 영상 1편, 연계 상설전시실 웅진백제실 968㎡
주요 개선 내용	발굴 50주년 특별전과 연계하여 출토유물 124건 5,232점 최초 전체 공개

□ 추진 배경

○ 유적 실물을 공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시작된 콘텐츠 개발

- 무령왕릉은 1971년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무덤으로 삼국시대 무덤 가운데 유일하게 무덤 주인을 알 수 있는 왕릉임
- 발굴 이후 벽돌 균열과 벽체 기울음, 누수 등 훼손이 진행되어 문화재위원회가 1997년 폐쇄를 결정하였고 내부 관람은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음
- 실물 관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박물관은 원본을 대신하는 관람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가 생김

○ 발굴 50주년(2021)을 계기로 축적된 연구 성과의 콘텐츠 전환

- 박물관은 『무령왕릉 발굴 50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2021.9.14.~2022.3.6.)에서

출토유물 124건 5,232점 전체를 발굴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공개함

- 기획전시실은 1971년 발굴조사와 그간의 연구 성과, 향후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연구 자체를 전시 주제로 삼았음
- 박물관은 주요 유물의 CT 촬영 등 3차원 형상 데이터 확보와 목재의 연륜연대·수종 분석, 금속 성분 분석 등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 축적이 콘텐츠의 고증 기반이 됨

□ 주요 내용

○ 디지털 실감 영상 <무령왕릉 1,448년간의 이야기>

- 박물관은 2021년 7월 6일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개관하면서 대표 브랜드인 무령왕릉을 주제로 한 이 영상을 처음 공개함
- 영상은 무령왕이 작고한 523년부터 무덤이 발굴된 1971년까지 총 1,448년 간 무덤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문가의 고증과 상상을 더해 제작한 것으로 6면 프로젝션 매핑에 터치형 인터랙션을 결합하여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제공함
- 벽돌무덤 축조, 왕과 왕비의 안치, 시간의 경과, 무덤의 발굴 순으로 전개되어 유물 단위 감상이 아닌 무덤의 일생이라는 시간축 서사를 구현함

○ 상설전시실 재현 전시와 결합한 이중 구조

- 상설전시실인 웅진백제실에는 무령왕릉 내부 바닥과 동일한 크기의 진열장에 진묘수, 제사용 그릇, 왕과 왕비의 목관 등을 원위치대로 배치해 관람객이 무덤 내부에 들어와 있는 듯한 체험을 연출함
- 목관은 3D 스캔을 거쳐 실제 크기로 전시하고 발굴 실물과 재현품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함
- 실물 유물의 원위치 재현과 디지털 실감 영상을 결합해 원본 비공개와 관람 욕구 사이의 간극을 좁힘

○ 상설 채널과 특별전을 오가는 콘텐츠 순환 구조

- 실감 영상은 2021년 7월 상설 공개된 뒤 같은 해 9월 발굴 50주년 특별전에서도 상영되어 단일 콘텐츠가 상설 운영과 기획전시에 이중으로 활용됨

그림 3-1 | 국립공주박물관 사례 이미지



실감 영상 〈무령왕릉 1,448년간의 이야기〉 상영 장면 웅진백제실의 무령왕릉 원위치 재현 전시(진묘수·목관)

자료 : 국립공주박물관 보도자료

(2) 대구간송미술관 - 〈훈민정음 해례본 : 소리로 지은 집〉

구분	내용
기관명(위치)	대구간송미술관(대구광역시 수성구)
콘텐츠명	〈훈민정음 해례본:소리로 지은 집〉(전시실 3, 현대미술 프로젝트)
콘텐츠 유형	진본·미디어 병치형(커미션 사운드 아트 3점과 국보 진본의 동일 공간 전시)
운영 시기	2024.9.3.~2025.5.25.
사업 금액	미공개(간송미술문화재단,대구광역시 공동 운영)
사업 규모	독립 전시실 1개실, 커미션 미디어 작품 3점
주요 성과	동시 개최 개관전 기준 관람객 22만 4천여 명(일평균 2,881명), 대구 경북 외 지역 관람객 30% 이상

□ 추진 배경

○ 시각적 소구력이 낮은 기록유산을 대상으로 한 전시 기획

-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해설한 서적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유산임
- 진본 공개는 매우 드문 일로 간송미술관 외부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 전시가 전부였음
- 서적은 회화나 도자에 비해 시각적 화려함이 덜해 일반 관람객이 가치를 체감하기 어려운 유물 유형이라는 조건이 있었음

○ 상설 공개 전환을 계기로 한 새로운 전시 문법의 실험

-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대구광역시의 건립·운영 계약(2016)에 따라 조성된

간송 컬렉션의 유일한 상설 전시 공간으로 2024년 9월 3일 개관함

- 개관기념 국보·보물전『여세동보』(2024.9.3.~12.1.)와 함께 전시실 3에서 본 전시가 개막하였으며 개관전 종료 후에도 2025년 5월 25일까지 연장 운영됨
- 연1회 한시 공개에 그치던 소장품 운영이 상설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록유산의 항시 관람에 적합한 전시 형식이 요구되었음

□ 주요 내용

○ 진본과 커미션 미디어 작품의 동일 공간 병치

- 독립 전시공간인 전시실 3에 훈민정음 해례본 진본을 두고 미디어 아티스트 송예슬의 커미션 작품 3점을 함께 전시하는 구성을 함
- 진본을 커미션 작품의 한 요소로 배치한 구성에 대해 전인건 관장은 새로운 유형의 전시라고 밝힘
- 실감영상만 상영하는 방식과 달리 진본의 권위를 유지한 채 미디어가 해석을 보조하는 층위의 유물·미디어 결합을 구현함

○ 기록유산의 가치를 소리라는 감각으로 번역

- 〈해례본 길〉(2024) 등 출판작은 중세한국어 연구자부터 할머니 래퍼까지 다양한 주체가 해례본 낭송에 참여한 사운드 아트로 구성됨
- 담당 학예연구사는 이를 훈민정음의 아우라를 공기의 떨림으로 표현해 세종의 애민정신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프로젝트로 설명함
- 문자를 읽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창제된 훈민정음의 애민정신과 문자에 대한 배리어프리 개념의 확장이라는 전시 형식이 주제와 일치하는 구조를 이룸
- 시각 중심 감상이 어려운 관람객에게 비시각 감상 경로를 제공하여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전시 기획 단계에서 설계함

○ 개관전 연계 운영 성과

- 동시 개최된 개관전 『여세동보』에는 3개월 간 22만 4천여 명이 방문해 일평균 2,881명을 기록함
- 관람객의 30% 이상이 대구경북 외 지역에서 방문하여 광역 단위의 홍보 및 유인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음
- 개관전 관람객의 평균 연령은 36.4세로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가 16~24% 범위에 고르게 분포함

그림 3-2 | 대구간송미술관 사례 이미지



전시실 3의 사운드 아트 공간 전경



전시실 3의 훈민정음 해례본 진본 전시 장면

자료 : 대구간송미술관 보도자료

(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디지털 황룡사 : AR 현장 복원〉

구분	내용
기관명(위치)	국립문화유산연구원(경상북도 경주시)
콘텐츠명	황룡사 중문·남회랑 증강현실 디지털 복원
콘텐츠 유형	소실 건축유적의 실물크기·정위치 증강현실(AR) 복원 및 유적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기	2020년 7월 공개
사업 금액	미공표
사업 규모	중문(26.4×12.6m)과 남회랑(중문 포함 272.5m)의 내외부 복원, 지붕 형태별 복원안 각 2종 구현
주요 성과	부재 단위 제작과 내부 진입이 가능한 실물 크기·정위치 AR 복원의 국내 첫 사례(문화재청 발표), 후속 디지털 복원의 표준 모델

□ 추진 배경

○ 물리적 재건이 어려운 소실 유적의 복원 수요

- 황룡사는 553년(신라 진흥왕 14년) 창건을 시작해 신라 최대의 사찰이 되었으나 1238년(고려 고종 25년) 몽골 침입으로 소실되어 현재는 경주 황룡사지라는 이름의 터로만 남아 있음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주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하나로 황룡사의 중문과 남회랑을 증강현실 기술로 복원하여 2020년 7월 공개함
- 문화재청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유산의 디지털 구현 선례(돈의문, 2019년)가 있었으나 건물 부재를 세세하게 제작하여 내부까지 들여다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로 복원한 것은 이번 사례가 최초라고 밝혔음

□ 주요 내용

○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고증과 기술 구현

- 이번 복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2년부터 진행해 온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의 일환으로 2018년 중문을 1차 제작한 뒤 2019~2020년 보완을 거쳐 남회랑 전체로 범위를 확대함
- 고증안은 연구소 황룡사복원정비사업단이 수립하고 콘텐츠 개발은 전문 기업이 수행했으며 고증상 복수의 가능성이 있는 중문을 2층 우진각지붕과 1층 맞배지붕의 2가지 형태로 남회랑도 이에 맞춰 2가지 형태로 구현해 복원안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함
- 복원된 중문은 가로 26.4m, 세로 12.6m이고 남회랑의 길이는 중문을 포함해 272.5m이며, 체험자와 건축물의 거리를 계산한 원근감 구현과 시간에 따른 그림자 계산으로 실제감을 확보함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대신 마커 인식과 카메라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해 건물이 정확한 자리에 서도록 위치 정확성을 확보함

○ 유적 현장에서의 체험 운영

- 관람객은 황룡사지 현장에서 대여하는 태블릿PC로 중문과 남회랑에 직접 들어가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음
- 체험 프로그램에는 출토 유물을 활용한 보물찾기, 발굴유적 관람, 4계절 배경 적용, 건물 확대 보기, 황룡사를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과 전자우편 전송, 건축 과정 애니메이션, 건축 부재 설명의 기능이 함께 제공됨

그림 3-3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례 이미지



황룡사지 현장의 중문 AR 체험 장면



황룡사 중문 AR 체험 화면

자료 : 국가유산청 보도자료(2022.7.22.)

2 • 박물관 브랜딩 및 마케팅 사례

(1) 국립춘천박물관 - 〈창령사 터 오백나한〉 브랜드 소장품화

구분	내용
기관명(위치)	국립춘천박물관(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브랜드 자산	영월 창령사 터 출토 오백나한상(2001년 출토, 고려 말~조선 초 제작 추정)
브랜드화 방식	기관 공식 브랜드 소장품 지정 및 상설 브랜드실 운영, 국내외 순회전
추진 경과	2018년 춘천 특별전 최초 공개, 2019년 서울·부산 순회, 2019년 12월 브랜드실 개관, 2021~2022년 국외전
협력 체계	국립춘천박물관(유물 대여), 파워하우스박물관(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주시드니한국문화원 등(후원)
주요 성과	호주 국외전 관람객 23만여 명, 귀국 후 전주·강릉·제주 순회 지속

□ 추진 배경

○ 브랜드 자산의 원천이 된 정서적 소구력

- 오백나한상은 2001년 영월 창령사 터에서 출토된 석조 나한상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제작으로 추정되며 아담한 크기와 순수한 미소가 특징임
- 국보·보물급 명품이 아닌 소장품이 투박한 표정과 미소라는 정서적 소구점을 통해 관람객의 주목을 받은 사례로 유물의 지정 등급과 브랜드 잠재력이 별개임을 보여줌
- 폐사지 출토품으로 종교적·역사적 배경 정보가 제한적이었으나 박물관은 이를 제약이 아닌 보편 정서로의 재해석 여지로 활용함

○ 특별전 흥행을 통한 관람 수요 사전 확인

- 2018년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로 처음 일반에 공개되어 관람객의 호응을 얻음
- 2019년 상반기 국립중앙박물관, 하반기 부산 박물관 순회전으로 이어지며 전국 단위의 수요가 확인됨
- 춘천·서울·부산에 걸친 2년간의 특별전 성과가 상설 공간 조성의 직접적 근거가 되었음을 확인함

□ 주요 내용

○ 브랜드 소장품 지정과 전용 공간 상설화

- 박물관은 오백나한상을 기관의 브랜드 소장품으로 공식화하고 2019년 12월 27일 상설

브랜드실 <창령사 터 오백나한, 나에게로 가는 길>을 개관함

- 브랜드실은 관람객이 나한상을 고요히 마주하도록 정갈하게 연출되었고 사유와 명상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갖추었으며, 담당 학예연구사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이 마음의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밝혀 힐링 지향의 기획 의도를 밝힘
- 2020년 나한상 전면 교체 공개, 2024년 대표 나한상 14점 재전시 등 주기적 교체 전시로 상설 공간의 재방문 유인을 유지하고 있음

○ 국외전 수출 및 순회 전시의 지속

- 한·호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창령사 터 오백나한전』이 시드니 파워하우스박물관에서 2021년 12월 2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파워하우스박물관이 주관하고 국립춘천박물관이 유물을 대여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주시드니한국문화원이 후원하는 다자 협력 구조로 추진됨
- 전시는 설치작가 김승영의 1천 개가 넘는 스피커를 쌓은 작품 <타워> 곳곳에 복원·보존처리를 거친 나한상 50점과 부처상 1점을 배치하고 사운드 디자이너 오윤석과 협업한 대규모 체험형 전시로 구성되었으며 시드니 모닝 헤럴드, 디 오스트레일리안, SBS 월드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비중 있게 소개됨

그림 3-4 | 국립춘천박물관 사례 이미지



브랜드실 <나에게로 가는 길> 전시 연출

자료 : 국립춘천박물관 보도자료



시드니 파워하우스뮤지엄 순회전 전경

자료: 주시드니한국문화원 보도자료

(2)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 〈문창상품〉 서사 기반 상품화

구분	내용
기관명(위치)	국립고궁박물관(대만 타이베이시)
브랜드 자산	강희제 친필 주비 "朕知道了(짐이 알았다)" 등 문헌 속 어구와 이야기
브랜드화 방식	유물 형태 복제가 아닌 어구·서사의 문화창의상품(문창상품) 전환
추진 경과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제정(2010), '朕知道了' 종이테이프 출시(2013.7)
협력 체계	대만 문화창의산업 정책(문화부, 2012 신설)과 국립박물관의 정책·기관 연계
주요 성과	출시 2개월 미만 2만 롤 이상 판매, 베이징 고궁박물관 등 후발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

□ 추진 배경

- 정부의 문화창의산업 육성 기조가 박물관 상품 개발의 제도 기반이 되었음
 - 대만은 문화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2010년 문화창의산업발전법(文化創意產業發展法)을 제정하고 2012년 문화건설위원회를 문화부로 확대 신설함
 - 국립박물관이 이 정책 기조의 실행 주체로 기능하면서 문창상품 개발이 기관의 공식 사업 영역으로 자리 잡음

□ 주요 내용

- 문헌의 서사가 담긴 굿즈의 상품화 및 흥행
 - 박물관은 2013년 7월 청 강희제가 신하들의 상주문을 읽고 재가할 때 쓴 친필 주비 '朕知道了'를 그대로 옮긴 종이테이프를 출시함
 - 박물관 상품 개발 담당자는 기념품을 생활과 연결하고 각 상품에 역사를 담아 집으로 가져간 기념품이 일상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 황제의 육성이라는 서사가 소구점이 된 사례로 굿즈의 경쟁력이 유물의 시각적 화려함이 아닌 이야기의 힘에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줌
- 박물관 상품화 문법의 전환 및 파급효과
 - 기존 박물관 기념품이 명품 유물의 복제·축소품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 사례는 문헌 속 어구 자체를 상품화해 상품화 대상의 범위를 유물의 형태에서 기록의 내용으로 확장함
 - 베이징 고궁박물관은 2013년 타이베이의 종이테이프 흥행을 계기로 문창상품 개발 방향을 전환했으며 당시 베이징고궁박물관장 단자상(單霽翔)이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서 힘을 얻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후발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

그림 3-5 |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사례 이미지



'朕知道了' 종이테이프 3종



뮤지엄숍 '다보격(多寶格)' 매장 전경

자료 :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숍(npmshops.com)

자료: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3) 국립진주박물관 - 유튜브 <화력조선>

구분	내용
기관명(위치)	국립진주박물관(경상남도 진주시)
브랜드 자산	조선시대 화약무기 발달사 및 전쟁사 조사연구 성과와 이를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 85편
브랜드화 방식	단일 주제 전문 영상 콘텐츠의 시즌제 연속 제작으로 박물관 채널 자체를 콘텐츠 브랜드로 육성
추진 경과	2018년 조선시대 화약무기 조사연구, 2020년 11월 시즌1 공개, 2022년 특별전 병자호란 연계, 2025년 구독자 10만 명 돌파
협력 체계	박물관 조사 연구 및 특별전 성과를 원천으로 학예연구 인력이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연구 연계형 제작
주요 성과	39개 국립 문화기반시설 최초의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 대표 영상 조회수 310만 회(해외 시청 52%), 시청자의 63.2% 신규 인지, 실제 방문 9.4%(2025년 8월 보도자료 기준)

□ 추진 배경

○ 예산 제약이 있는 지역 국립관의 단일 주제 집중

- 화력조선은 조선시대 전통 화약무기 발달사와 전쟁사를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하는 국립진주박물관의 대표 온라인 콘텐츠로, 2020년 11월 시즌1 공개 이후 시즌제로 제작되어 85편이 서비스 중임
- 콘텐츠는 박물관이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조선시대 화약무기 조사연구 성과와 특별전

병자호란(2022) 등 전시 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됨

- 전 장용준 관장은 진주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박물관 가운데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연구와 콘텐츠 제작에 제약이 있는 여건에서 달성한 기록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100만 구독자를 목표로 제작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힘

□ 주요 내용

○ 국립 문화기반시설 최초의 구독자 10만 달성

-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는 시즌1 공개 후 4년 7개월 만인 2025년 기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6.21만 명), 국립현대미술관(7.63만 명) 등으로 확인됨. 이는 39개 국립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최초의 기록임⁵⁾
-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사르후’는 조회 수 310만 회를 기록했고 해외 시청 비율이 52%에 달했으며, ‘정주성 전투’(130만 회)와 ‘만령전투’(117만 회)가 뒤를 이음
- 누적 2만 6천여 개의 댓글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응원과 국립박물관의 고증·학술 연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짐

○ 이용자 조사로 입증된 인지 제고와 방문 전환

- 박물관의 유튜브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2025), 화력조선을 접하고 국립진주박물관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63.2%에 달했으며 시청자 중 9.4%가 박물관을 실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 | 국립진주박물관 사례 이미지



유튜브 <화력조선> 공개 포스터



100만 조회 돌파한 <화력조선> 인기 영상 썸네일

자료 :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 채널

5) 2026년 10월 기준,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는 국립진주박물관(11.7만 명), 국립중앙박물관(10.1만 명), 국립현대미술관(8.15만 명)으로 확인됨

3 • 시설·운영 혁신 사례

(1) 문화역서울284 - 옛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재생

구분	내용
기관명(위치)	문화역서울284(서울특별시 중구)
대상 시설	1925년 개장한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 1981년 지정 당시 번호)
혁신 방식	건립 당시 자료에 근거한 원형 복원과 복합문화공간 전환
추진 경과	2004년 철도역 기능 상실, 2007년 문체부 관리 전환, 약 2년 복원 공사 후 2011년 8월 9일 개관
운영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 운영
공간·프로그램 구성	고정 상설전 없이 융복합 기획전 연중 순환, 음악·공연·체험·강연, 복원전시실 상설 운영
주요 성과	개관 프로젝트 6개월 간 60여 개 프로그램 편성

□ 추진 배경

○ 철도역 기능 상실 이후 제기된 근대 유산의 활용 과제

- 구 서울역사는 한 세기 동안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었으나 2004년 KTX 고속철도 개통과 신역사 완성으로 철도역 기능을 상실한 채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수년간 방치되었음
- 구 서울역사는 1981년 4월 사적 제284호로 지정되면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고 2007년 8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를 맡음
- 문화체육관광부 관리 전환 이후 사진·미술·디자인·건축 전시회와 음악회, 콘퍼런스,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먼저 검증됨

□ 주요 내용

○ 원형 복원과 동시대적 활용을 양립시킨 공간 전환

- 약 2년간의 원형 복원 공사를 거쳐 2011년 8월 9일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로 개관함
- 복원 공사는 1925년 건립 당시 자료를 근거로 진행됨
- 복원 과정에서 수집된 유물과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복원전시실을 조성하여 재생의 과정 자체를 상설 콘텐츠로 전환함

○ 고정 상설전 없는 순환형 프로그램 운영 모델

- 개관과 함께 시작된 카운트다운 프로젝트는 6개월 간 전시회, 공연, 영화 등 총 60여 개

프로그램을 편성함

- 2026년, 현재도 문화예술 융복합 전시가 연중 개최되며 건물 우측 RTO 공간에서 음악, 공연, 체험, 강연 등 프로그램이 운영됨
- 단일 상설전시에 의존하지 않고 기획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교체하는 운영은 재방문 동기가 약한 역사형 시설의 약점을 보완하는 모델로 사료됨

○ 소관과 운영을 분리한 위탁 운영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을 맡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2011년 준공과 함께 위탁 관리를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림 3-7 | 문화역서울284 사례 이미지



구 서울역사 전경



현 문화역서울284 전경

자료 : 문화역서울284 제공

(2) 런던박물관(London Museum)×런던탑(Tower of London) - 이원 거버넌스

구분	내용	
	런던박물관	런던탑
기관명(위치)	런던박물관 (영국 런던, 신관 스미스필드 2026.11.28. 개관 예정)	런던탑 (영국 런던, Historic Royal Palaces 관리)
대상 시설	도시 역사 박물관 (1965년 법률로 설립)	유네스코 세계유산 (1988년 등재)
혁신 방식	개별 법률에 근거한 광역·기초 공동 출연 운영, 공익법인(registered charity) 등록	정부 설립 기관의 독립 공익법인 전환
추진 경과	1965년 법정 설립, 2007년 법 개정으로 광역런던청 공동 거버넌스 전환, 2010년 12월 공익법인 등록	1989년 정부 전담 기관 설립, 1998년 3월 왕실칙허(Royal Charter)로 독립 공익법인 전환

운영 체계	광역런던청과 런던시티가 이사 각 9인 임명, 지출 절반씩 공동 부담	HRP 이사회가 운영, 세계유산관리계획 직접 수립
공간·프로그램 구성	소장품 700만 점 기반 도시사 상설·기획 전시 (신관 2026년, 학습센터·기획전시동 2028년 개관 예정)	유산 현장 관람 중심 운영
주요 성과	신관 사업 총 4억 3,700만 파운드 투자(런던시티 누적 2억 2,200만, 시장 누적 9,500만 파운드), 연 200만 명 유치 목표	연 수입 1억 3,860만 파운드(2025 회계연도), 정부 경상 지원 없는 재정 자립

□ 추진 배경

○ 도시 유산의 해석 기능과 현장 기능이 분리된 전문화 거버넌스

- 런던 박물관은 런던의 역사를 다루는 도시 역사박물관이고 런던탑은 198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으로 각각 법정 공동출연 구조와 독립 공익법인이라는 상이한 운영 모델을 갖추고 있음
- 하나의 도시 안에서 해석 공간과 유산 현장이 각자의 기능에 맞는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온 구조로 도시 유산 해석 체계의 분담 모델로 해석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 런던 박물관은 법정 근거·공동 재정·공익법인 등록을 갖춘 운영 구조임

- 런던 박물관은 Museum of London Act 1965와 GLA Act 2007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재정적 파트너는 광역런던청(GLA)과 런던시티(City of London Corporation)임
- 1965년 법률은 런던뮤지엄과 길드홀뮤지엄의 소장품을 통합하여 박물관 이사회를 설립함
- 2007년 법률은 중앙정부의 이사 임명권과 재정 지원 책임을 광역런던청으로 이전하여 이사회 18인 중 9인을 광역런던청이, 9인을 런던시티가 임명하고 지출을 절반씩 부담하는 현재의 공동 거버넌스가 완성됨
- 2010년 12월 영국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등록된 공익법인(registered charity)지위를 취득함

○ 공동 출연 구조에 기반한 대규모 사업 재원 확보

- 스미스필드 옛 시장 건물로 이전하는 신관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3,700만 파운드 규모로 2026년 11월 28일 개관이 확정되었고 학습센터와 기획전시 공간이 들어설 옛 가금류 시장 건물(Poultry Market)은 2028년 개관 예정임
- 런던시티는 2023년 4월 신관 사업에 7,300만 파운드를 추가 투입하기로 발표하며 신관을

런던 10대 명소로 육성하여 연 200만 명 이상을 스미스필드 일대로 유입시키는 구상을 밝힘

- 박물관은 신관이 연 200만 명을 유치하고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관광객이며, 개관 후 10년간 5억 6,500만 파운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함

○ HRP는 정부 설립 기관에서 재정 자립 공익법인으로 전환함

- 런던탑을 관리하는 HRP는 1989년 정부 부처 산하 전담 기관으로 출발하여 1998년 3월 왕실칙허(Royal Charter)로 설립된 독립 공익법인으로 전환됨

- HRP는 유네스코 요건에 따라 런던탑 세계유산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며 현재 2025~2030 계획을 운영하고 있음

- HRP의 2025 회계연도 총수입은 1억 3,860만 파운드로 정부 계약 수입이 없고 정부 보조금은 총수입의 0.5% 미만이며 코로나 19 시기인 2021 회계연도에 1,800만 파운드 규모의 한시 지원을 받은 바 있음

그림 3-8 | 런던박물관x런던탑 이원 거버넌스 사례 이미지



런던박물관 신관



런던탑 외관 이미지

자료 : 런던박물관 제공

자료 : 런던탑 제공

(3) 맨체스터 뮤지엄 파트너십(Manchester Museums Partnership) - 시청·대학 소속 기관의 연합 운영

구분	내용
기관명(위치)	맨체스터아트갤러리(맨체스터 시의회 소속)· 휘트워스 미술관과 맨체스터박물관(맨체스터대학교 소속)
대상 시설	설립 및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시립·대학 박물관 3개관
혁신 방식	조직 통합 없는 공동 관장제와 컨소시엄 단위 자원 확보를 결합한 연합 운영

추진 경과	2011년 시의회·대학 협약으로 공동 관장 임명, 2012년 파트너십 단위 예술위원회 재원 확보, 2015년 휘트워스 증축 재개관, 2023년 공동 관장제 종료 이후에도 컨소시엄 유지
운영 체계	각 기관의 소속과 의사결정 구조 유지, 공동 관장(2011~2022년)이 시의회 문화 전략총괄 겸직(2014~2017년), 개관 컨소시엄의 국가포트폴리오기관(NPO) 공동 운영
공간·프로그램 구성	상호 보완적 기획전과 프로그램, 학습·참여 부문 일부 직책의 기관 간 공유, 휘트워스 1,500만 파운드 증축(2015년 재개관)
주요 성과	조직 합병 없는 공동 관장제 모델 제시, 휘트워스 재개관 14주 만에 종전 연간 기록 초과(18만 명)와 2015년 아트펀드 올해의 박물관상 수상, 컨소시엄 단위 재원의 장기 확보

□ 추진 배경

○ 재정 압박 속에서 선택된 합병 없는 연합

- 2011년 맨체스터 시의회와 맨체스터대학교의 협력으로 대학 소속 휘트워스 미술관장이던 마리아 발쇼(Maria Balshaw)가 시립 맨체스터아트갤러리의 관장을 겸하는 공동 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발쇼는 조직을 합병하지 않고도 공동 관장을 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힘
- 시의회와 대학은 양측 모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판단으로 협력을 추진했으며 발쇼는 대학 소속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두 기관을 이끌
- 2014년부터 발쇼는 시의회의 문화 전략총괄을 겸직해 기관 운영과 도시 문화정책을 한 사람이 연결하는 구조를 이룸

□ 주요 내용

○ 파트너십 단위의 재원 확보와 협력의 심화

- 2012년 맨체스터아트갤러리, 휘트워스, 맨체스터박물관의 3개관은 맨체스터 뮤지엄 파트너십(Manchester Museums Partnership)의 이름으로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3년 단위 주요 파트너 재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16개 주요 파트너 기관에만 허용된 지원임
- 두 미술관은 각자의 소속과 기관 성격을 유지한 채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과 기획전을 발전시켰고 학습·참여 부문 등 일부 직책을 기관 간 공유하는 수준까지 협력을 심화함
- 협력 기간에 휘트워스는 1,500만 파운드 규모의 증축을 거쳐 2015년 2월 재개관했으며

14주 만에 18만 명이 방문해 종전 연간 기록을 넘어섰고 같은 해 아트펀드 올해의 박물관상(상금 10만 파운드)을 수상함

○ 2023년 공동 관장제 종료 이후에도 유지된 컨소시엄 협력

- 2017년 발쇼가 테이트 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앨리스터 허드슨(Alistair Hudson)이 공동 관장직을 승계했으나 2022년 말 사임했고, 2023년 두 미술관은 기관별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는 독자적인 관장 체제로 전환함
- 맨체스터 시의회는 공동 관장제 종료를 발표하면서도 3개관의 컨소시엄 협력은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2023~2026년 지원 대상에서도 파트너십 단위 재원이 유지됨

그림 3-9 | 맨체스터 뮤지엄 파트너십 사례 이미지



맨체스터아트갤러리 외관



휘트워스 미술관 전경



맨체스터 박물관 외관

자료 :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시의회 소속)
제공

자료 : 휘트워스 미술관(맨체스터대학교
소속) 제공

자료 : 맨체스터 박물관(맨체스터대학교
소속) 제공

제2절 박물관 공간 재편 사례

1 리모델링/증축

(1) 부산시립미술관 - 본관 리노베이션

구분	내용
시설명(위치)	부산시립박물관 본관(부산광역시 해안대구)
개관/리모델링 시기	1998년 개관, 2024년 12월 공사 착수, 26.09.17. 재개관
사업 금액	430억 원
사업 규모	본관 연면적 22,295㎡(부지 내 옥외 정비 포함)
재정비 배경	건물 노후화에 따른 반복 누수와 향온·향습 설비 부재로 인한 전시 유치 한계
주요 개선 내용	전시실 향온·향습 시스템 구축, 3층 전시장 통합, 어린이미술관·교육공간 개선, 1층 출입구 개선, 소장품 수장 시설 확보, 미술자료 시설 개선

□ 추진 배경

○ 전시 유치 한계로 이어진 노후화된 시설 여건

- 1998년 건립된 부산시립미술관은 건물 노후화로 2016년부터 누수 피해와 방수 공사를 반복하였고 2020년에는 누수로 인해 전시 중인 작품이 부풀어 오르는 피해 사례가 발생함
- 자동 향온·향습 시스템이 없어 2023년 1월 개막한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 줌비」전시가 무산 위기를 겪는 등 시설 문제가 대형 기획전 유치의 제약으로 이어졌음

○ 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6년에 걸친 장기 준비 절차

- 미술관은 2018년 10월 본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 설계 공모로 당선작을 선정한 뒤 같은 해 9월 설계 용역에 착수함
- 2023년 12월 17일 기획전 종료와 함께 휴관에 들어갔으며 실제 공사는 2024년 12월 착수되어 2026년 9월 17일 재개관 완료

□ 주요 내용

○ 신축·이전 없이 같은 장소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보수

-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본관 연면적 22,295㎡를 리모델링하며 부지 내 옥외 정비를 병행하고, 전시실 향온·향습 시스템 구축, 3층 전시장 통합, 어린이미술관과 교육 공간 개선, 소장품 수장 공간 확충 등이 포함됨
- 1층 출입구 개선과 미술자료 시설 개선을 포함하고 건물 안팎의 경계를 허물며 다목적홀과

아트숍 등 관람객 편의 공간을 추가하는 것을 건축적 목표로 설정함

- 설비·전시·수장·교육 공간을 한 번에 정비하는 방식으로 노후 대응과 기능 재편을 병행하는 구조임

○ 휴관 공백을 완화하는 대체 운영 장치의 병행

- 리모델링과 별개로 별관인 이우환 공간은 휴관 기간에도 정상 운영되고 있음
- 휴관 기간 중에도 시민이 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환경에 게임형 미술관을 구축하여 전시와 관람, 교육,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계획을 발표함
- 미술관은 2024년 4월 게임회사 더크로싱랩과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같은 해 12월 24일 메타버스 미술관을 공개했으며 개관전으로 소장품 기반 3개 전시, 274개 작품을 무료로 선보임
- 본관 휴관 기간에도 유관기관 협업으로 총 5개의 전시와 포럼, 상영회,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뉴미디어 작품 27점을 새로 수집함

그림 3-10 | 부산시립미술관 사례 이미지



부산시립미술관 본관 조감도



부산시립미술관 본관 내부 투시도

자료 : 부산시립미술관 보도자료

(2) 국립부여박물관 - 백제대향로관(금동대향로관) 증축

구분	내용
시설명(위치)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대향로관(충청남도 부여군)
개관/리모델링 시기	2025년 12월 23일 개관
사업 금액	211억 원
사업 규모	전체 면적 2,804㎡ / 국보 감상 공간 255㎡ / 지상 3층 별도
재정비 배경	대표 국보 백제금동대향로의 예술적·사상적 의미를 온전히 조명할 전용 공간의 필요
주요 개선 내용	상설전시실 연결 별도 신축, 1층 미디어아트 공간과 3층 진품 감상·체험 공간의 분리 구성, 음악·향을 결합한 다감각 연출, 무장에 체험 공간

□ 추진 배경

○ 단일 국보의 상징성에 대응하는 전용 공간의 부재

- 백제금동대향로는 1993년 12월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된 유물로 용과 봉황, 신선과 동물, 악기를 연주하는 다섯 연주자 등 독창적인 조형으로 백제인의 세계관과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국보임
- 국립부여박물관은 향로의 예술적·사상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5년 동안의 준비 끝에 전용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2025년 12월 23일 백제대향로관을 개관함

□ 주요 내용

○ 유물의 조형 구조를 건축으로 풀어낸 공간 설계

- 백제대향로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건물의 층위와 공간 구성에 향로의 조형 구조가 반영됨
- 1층은 기존 상설전시실과 연결된 공간으로 향로 하부의 수중세계를 창작 동기로 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수중세계의 용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동선을 에스컬레이터로 구현하여 1층과 3층 전시실을 연결함
- 3층은 향로 상부의 산악·천상 세계를 표현한 공간으로 어두운 조도의 감상 공간 백제금동대향로실과 밝은 조도의 정보·휴게 공간 향·음, 향·유로 구분함

○ 시각을 넘어 청각·후각으로 확장한 단일 유물 감상

- 진품 감상 공간은 255㎡(약 77평) 규모로 초타원형 개념에 따라 벽체와 모서리를 곡선으로 구성하고 벽체를 따라 일체형 의자를 구비함으로써 관람객이 앉아서 향로와 공간을 함께 감상하도록 함

- 감상 공간에는 향로 뚜껑의 다섯 연주자 악기 구성을 바탕으로 작곡한 음악이 흐르고 고대 향로를 현대적으로 조향한 향기가 더해져 어두운 전시실 중앙에서 향로 한 점이 금빛을 뿜어내는 연출이 구현됨
- 정보 공간 향·음은 무장애 환경으로 설계되어 향 기둥 시향, 다섯 악기 음향 체험, 복제품 촉각 체험, 수어 포함 영상을 제공하고 전망 공간 향·유에서는 부여의 경관을 조망하여 관람의 여운을 이어가도록 함

그림 3-11 | 국립부여박물관 사례 이미지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대향로관 백제금동대향로실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대향로관 정보 및 휴게 공간(향·유)

자료 : 국립부여박물관 제공

(3) 한국이민사박물관 - 증축 및 콘텐츠 확충 (예정)

구분	내용
시설명(위치)	한국이민사박물관(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
개관/리모델링 시기	2008년 개관 / 2028년 10월 개관 예정
사업 금액	275억 원
사업 규모	연면적 5,579㎡(현 4,246㎡ 대비 31.4% 증가)
재정비 배경	미주 중심 이민사 한정 전시 콘텐츠 한계 및 이전·존치를 둘러싼 확대 개편 논의
주요 개선 내용	전 세계 한인 이민사 상설전시 확대, 이민사 전자박물관(e-뮤지엄), 전시동·사무동 사이 증축과 옥상정원·카페·어린이 체험실, 인력 확충

□ 추진 배경

○ 시장 지시로 개시되어 공식 검증 절차로 정리된 입지 의사결정

-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으로 2008년부터 중구 월미산 자락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한인 최초의 공식 이민자들을 태운 1902년 하와이 이민선 궤적호가 떠난

인천항과 인접함

- 확대 개편 논의는 시장지시사항(2023.5.22.)으로 공식화되었고 인천시는 2024년 8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함
- 연구용역은 월미도 현 건물 증축 리모델링(1안)과 송도 인천도시역사관으로의 증축 이전(2안)을 입지 여건, 건축 계획, 소요 금액, 정책 부합성 측면에서 비교하고 2024년 11월 시민공청회를 열어 양안을 공개 검증함
- 현 위치 증축안의 근거로 세계 이민사박물관들이 역사적 장소에 입지한다는 유사 사례 분석과 제물포 르네상스 등 시 정책과의 부합성이 제시되었으며 인천시는 2025년 8월 증축과 콘텐츠, 인원 확충 추진을 발표함

○ 콘텐츠 범위의 한계와 정책 환경 변화

- 본 사업은 미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이민사만 다루던 전시 범위를 전 세계 한민족 이민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 이후 강화된 재외동포 환대 정체성을 반영함
- 기본 방향은 전 세계 한인 이민사 콘텐츠 보유, 관람객 체류형 박물관 조성,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방문객 유치, 재외동포가 찾는 4가지의 교류의 장으로 설정함

■ 주요 내용

○ 증축 규모와 재원, 추진 일정

- 증축 후 연면적은 5,579㎡로 31.4% 증가하며 총사업비는 자료조사·수집비 21억 원을 포함해 275억 원 전액 시비로 추산됨
-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투자심사(2025.9.~2026.6.),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8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며 공사 중 약 1년의 휴관이 예상됨
-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B/C) 1.21로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인력은 19명에서 32명으로 확충하는 계획임

○ 수집 기반 콘텐츠 확충과 도시 재생 축과의 연계

- 전 세계 한인 이민사 자료 수집을 우선 추진하여 상설 전시실을 구성하고 온라인 이민사 전자박물관(e-뮤지엄)을 병행 운영함
- 옥상정원, 박물관 카페, 어린이 체험실 등으로 체류형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개항장과 월미도를 잇는 이민의 길을 조성하여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함

그림 3-12 | 한국이민사박물관 사례 이미지



한국이민사박물관 증축 조감도



한국이민사박물관 전후 조감도

자료 : 한국이민사박물관 제공

2 • 신축(이전)

(1) 인천뮤지엄파크 - 시립박물관 확장 이전 + 시립미술관 신축

구분	내용
시설명(위치)	인천시립박물관(확장 이전) / 인천시립미술관(신축)(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관/리모델링 시기	2026년 3월 착공, 2028년 개관 예정
사업 금액	약 2,416억 원
사업 규모	연면적 38,889㎡ / 지상 2층·지하 1층
재정비 배경	시립박물관의 확장 이전 수요 및 특·광역시 중 유일한 시립미술관 부재
주요 개선 내용	박물관 확장 이전과 미술관 신축의 단일 부지 동시 조성, 전시실·수장고 확충, 기존 기업 사업 리모델링 활용

□ 추진 배경

○ 박물관 이전 수요와 시립 미술관 부재를 단일 부지에서 해소하는 구상

- 인천시는 시 자료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박물관으로 소개하는 시립박물관이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다는 점을 사업의 논거로 제시함
- 시립미술관 건립은 2009년부터 별도 부지(도화구역)에서 추진되다가 중단되었으며, 2016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부지가 확보되면서 미술관 신축과 박물관 확장 이전을 단일 부지에 통합하는 방안으로 전환됨
- 기존 시설의 이전 수요와 신규 시설의 건립 수요를 하나의 부지에서 함께 해소함으로써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고 시설 간 운영 연계의 기반을 확보한 모델임

□ 주요 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계획

- 2021년 중앙투자심사 시점의 계획에서 시립박물관은 시설전용 연면적 14,625㎡(신축 11,813㎡, 기존 사옥 리모델링 2,812㎡), 시립미술관은 14,982㎡(신축 12,170㎡, 리모델링 2,812㎡)로 각각 지하 1층·지상 4층에 전시실과 수장고를 갖추는 구성이었음
- 2022년 국제설계공모 당선안을 반영하여 착공 기준 전체 연면적 38,889㎡, 지하 1층·지상 2층의 저층 수평형으로 조정되었으며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립 미술관의 콘텐츠 및 소장품 방향 설정

- 인천시는 2019년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을 문화다양성·다문화 가치 확산, 인천 근현대미술 진흥, 지역사회 미술문화 향유 증진, 미술관의 개방성 구현의 4가지로 제시함
- 개항 이후 다양한 문화가 유입된 도시 환경에서 디아스포라와 다문화를 인천의 지역성으로 도출하고 이를 타 미술관과 차별화하는 특화 전략으로 제시했으며 지역성 기반 기획전에 학교 연계 전시와 커뮤니티 아트, 지역 주민 참여 전시를 포함함
- 전시는 주제전, 개인전, 야외공간 연계전으로 구성되는 기획전 중심 체계로 계획하고, 상설전은 미술관 규모와 소장품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과제로 둠
- 소장품 수집은 미술관 성격에 준한 연구 기반 구입, 기획전을 계기로 한 구입, 지역성·지역 문화자원 연계 구입의 세 방향을 설정했으며 이후 소장품 정책 연구(2022년), 운영방안 연구(2023년), 인천미술사 조사·연구(2023~2024년)로 이어짐

그림 3-13 | 인천뮤지엄파크 사례 이미지



인천 뮤지엄 파크 조감도



인천시립미술관 동측 조감도

자료 : 인천시 제공

(2) 한밭교육박물관 신축 이전(대전시교육청)

구분	내용
시설명(위치)	한밭교육박물관(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개관/리모델링 시기	1992년 개관 / 2029년 1월 개관 예정
사업 금액	383억 원(중앙투자심사 시점 기준)
사업 규모	연면적 5,567㎡(현 2,117㎡의 약 2.7배) / 지상 3층
재정비 배경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학교 건물의 공간 제약 및 전시·편의시설 확충 수요
주요 개선 내용	옛 충남과학교육원 부지 신축 이전, 수장고·전시관·교육실·야외 체험 광장 조성, 주변 교육기관과의 연계 운영

□ 추진 배경

○ 문화유산 건물의 공간 제약과 신축 이전의 선택

- 한밭교육박물관은 1992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 전문 박물관으로 3만 6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1938년 준공되어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건물인 옛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사(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0호, 연면적 2,117㎡)를 전시실로 개조하여 사용해왔음
- 대전시교육청은 현 건물보다 넓은 전시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규모로의 확대 이전을 추진하여 2024년 상반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함

□ 주요 내용

○ 두 단계의 검증 절차와 추진 일정

- 이전 계획은 2024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용자 편의시설 활용, 주변 교육시설 연계, 타 박물관과의 차별화 계획 보고를 조건으로 승인되어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됨
- 박물관은 중구 문화동 옛 충남과학교육원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5,567㎡ 규모로 신축되며 2028년 12월 완공과 202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총 사업비 383억 원 중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 원 신청이 계획되어 있음

○ 교육기관이 모인 부지로의 이전과 기능 확충

- 이전 부지 일대에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과 대전국제교육원이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며, 대전시교육청은 박물관 이전으로 교육기관이 연계된 미래교육 클러스터가 구성될 것으로 밝힘

- 이전 후 박물관은 안전성과 공간 효율성을 갖춘 수장고와 전시관, 교육실, 야외 체험 광장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며 참여형·체험형 콘텐츠 확대와 지역 문화기관 협업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음

그림 3-14 | 한발교육박물관 사례 이미지



한발교육박물관 대전미래교육클러스터 조감도

자료 : 대전시교육청 제공

(3)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구분	내용
시설명(위치)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경기도 파주시)
개관/리모델링 시기	2021년 7월 23일 개관
사업 금액	467억 원(착공 시점 보도 기준)
사업 규모	연면적 10,268㎡ / 지상 2층·지하 1층
재정비 배경	본관 수장고의 포화 상태 및 소장 자료의 보존·활용 수요
주요 개선 내용	열린 수장고·보이는 수장고 도입, 민속 아카이브·어린이 체험실·보존과학실 조성

□ 추진 배경

○ 수장 공간 포화를 활용형 시설 건립으로 해소하는 전환

-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 삼청로 본관 수장고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자 소장 유물과 자료를 보관 및 활용할 별도 시설로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며 착공 시점 기준 소장 유물은 16만 여 점으로 수장률이 약 150%에 달했음
- 시설은 2018년 7월 착공과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 7월 23일 경기 북부 지역 최초의 국립박물관인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로 개관함

□ 주요 내용

○ 개방형 수장고의 공간 구성과 공개 방식

- 시설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0,268㎡ 규모이며 유물 수장 시설은 개방형 수장고 10개와 비개방 수장고 5개로 구성됨
- 관람자가 수장고 내부에 들어가는 열린 수장고와 외부 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보이는 수장고의 두 방식을 운영하며, 민속 아카이브, 보존과학실, 어린이 체험실, 영상실을 함께 배치함
- 소장품은 목재, 금속, 섬유, 지류 등 재질별로 수장 공간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재질에 따라 공개 방식을 차별화함

그림 3-15 | 국립민속박물관 사례 이미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전경



국립민속박물관 내 개방형 수장고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보도자료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전시 콘텐츠 혁신: 소장품을 늘리지 않고 대표 자산을 다시 해석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이 형성됨
 - 국립공주박물관은 공개할 수 없는 무령왕릉을 재현 전시와 실감 영상의 결합으로 되살렸고, 대구간송미술관은 시각적 소구력이 낮은 기록유산을 소리로 번역했으며, 국립부여박물관은 단일 국보 한 점에 전용 공간을 부여함
 - 세 사례 모두 새 유물 확보가 아니라 이미 가진 대표 유물의 해석·연출을 심화했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원본 공개의 제약(공주·황룡사)을 디지털 재현으로 해소하는 흐름도 확인됨
 - 디지털 황룡사가 2012년부터의 복원 심화연구를 고증 기반으로 삼았듯, 실감·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선행 연구의 축적이 좌우함
 - 수원화성박물관은 정조 관련 기록이라는 대표 자산과 학술 기반을 이미 보유하므로, 신규 수집이나 대규모 장비 투자보다 보유 자산을 시간축 서사·감각 확장·단일 주제 집중으로 재해석하는 전시 개편이 유효하며, 이는 리모델링 시 전시실 일부의 실감 전환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음
- 박물관 브랜딩·마케팅: 지정 등급이 아니라 이야기의 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고, 저비용 콘텐츠가 방문으로 전환됨
 - 국립춘천박물관은 국보·보물급이 아닌 오백나한을 정서적 소구점으로 브랜드화하였고, 대만국립고궁박물관은 유물의 형태가 아닌 문헌 속 어구를 상품화해 상품화 대상을 기록의 내용으로 확장
 - 국립진주박물관은 조사연구 성과를 학예 인력이 직접 영상으로 전환해 예산 제약 하에서도 국립 문화기반시설 최초로 구독자 10만을 달성했고, 시청자의 63.2%가 박물관을 새로 인지하고 9.4%가 실제 방문으로 이어져 온라인 콘텐츠의 방문 전환 효과가 수치로 입증됨
 - 세 사례 모두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 조사연구를 브랜드·콘텐츠의 원천으로 삼은 연구-브랜드 선순환 구조로, 자원 제약이 있는 기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해당함
 - 수원화성박물관은 정조의 어찰·의궤라는 서사 자산이 풍부하므로 기록 기반 굿즈와 연구 기반 온라인 콘텐츠로 인지도와 방문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리모델링과 병행 가능한 즉시 실행 과제임
- 시설·운영 혁신: 시설 개선을 전시 경쟁력의 언어로 추진하고, 입지가 자산인 기관은 현 위치 개선을 택함
 - 부산시립미술관은 향온·향습 설비의 부재가 대형 기획전 유치를 가로막는다는 점을 입증해

설비 투자를 전시 경쟁력의 문제로 제시했고,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역사적 장소에 입지한다는 논거로 신축 이전이 아닌 현 위치 증축을 선택함

- 부산시립미술관(타당성 조사~착공 6년)과 한국이민사박물관(사전평가·투자심사 약 10개월)은 시설 사업이 장기 검증 절차를 전제로 추진됨을 보여주며, 부산시립미술관의 메타버스 미술관과 문화역서울 284의 순환형 프로그램은 휴관·전환기의 공백을 대체 운영으로 메우는 방식을 보여줌
- 런던 맨체스터의 사례는 조직 통합 없이도 해석 거점과 현장의 기능 분담, 컨소시엄 단위 공동 자원 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줌
- 세계유산 수원화성에 인접한 입지 자체가 자산인 수원화성박물관은 신축·이전보다 현 위치에 서의 리모델링·단계적 개선이 합리적이며, 리모델링을 단순 보수가 아니라 전시실 실감 전환·동선 개선·기능 재편과 결합하고 휴관기 대체 운영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04

재정비 기본 구상

수원화성박물관 재정비 방향

비전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가치를 새롭게 경험하고 확산하는 대표 박물관

방향

현재

- ▶ 관람 중심
전시 관람 후 떠나는 경유형 공간
- ▶ 정적 전시 중심
유물·패널 중심의 보는 전시
- ▶ 보관 중심
수장·보존환경 및 전문기능의 한계
- ▶ 개별 시설 중심
수원화성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 부족

재정비

- ▶ 체류·경험 중심으로 전환
머물고 즐기는 박물관으로
- ▶ 전시 패러다임 전환
이해하고 경험하는 전시로
- ▶ 박물관 전문기능 강화
연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박물관으로
- ▶ 역할과 공간의 확장
수원화성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세부항목
1

머물고 즐기는 박물관

- ▶ (체류형 편의공간 조성) 카페·휴게 공간 확충 및 뮤지엄숍 독립·고도화
- ▶ (유희공간 활용) 로비·복도 등을 열린 휴게·문화공간으로 전환
- ▶ (무장애 관람환경) 무장애 공간 및 무장애 전시 콘텐츠 구축

세부항목
2

이해하고 경험하는 전시

- ▶ (상설전시 재구성) 핵심 주제 중심의 스토리라인 및 관람동선 전면 재구성
- ▶ (전시매체 다변화) 실감영상·미디어아트·인터랙티브 등 몰입·참여형 콘텐츠 도입
- ▶ (전시·체험 연계) 전시와 교육·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콘텐츠 구성

세부항목
3

연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박물관

- ▶ (수장공간 고도화) 수장고 재배치·확충 및 재질별 수장환경 개선
- ▶ (전문 보존기능 강화) 지류 보존처리실 확보 및 전문 보존기능 강화
- ▶ (보존환경 개선) 향온·향습·조도·공조 등 소장품 보존환경 전면 개선

세부항목
4

수원화성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

- ▶ (진입공간 정비) 입구·외관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입동선 개선
- ▶ (야외공간 활성화) 야외 유물·조경·휴게공간을 연계한 옥외 문화공간 조성
- ▶ (수원화성 연계) 화성행궁·성곽길·축제 등 주변 관광자원과 전시·프로그램 연계

제1절 역할 재정립

◎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가치를 새롭게 경험하고 확산하는 대표 박물관

□ 수원화성박물관의 역할을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해석 거점이자 역사적 정체성을 브랜딩하는 콘텐츠 허브로 재정립함

- 수원화성박물관의 재정비는 기존 박물관의 역할이나 기능을 부정하거나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박물관 내부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기능을 수원화성과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현재 수원화성박물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관람객과 소장 자료, 연구 성과 및 전시·교육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원이 박물관 외부의 관광·축제·교육·콘텐츠 생산 등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박물관이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장소이자 화성의 역사와 가치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점으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재정비는 단순한 관람객수 확대나 시설 개선에 머무르기보다, 박물관이 수원화성 및 수원의 역사문화 생태계 안에서 차지하는 기관적 위상과 역할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정립을 위한 수원화성박물관의 핵심 역할 설정

- 첫째, 수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축적·연구하는 학술적 거점
 - 수원화성박물관은 수원화성과 정조를 중심으로 관련 유물과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기능을 넘어, 이를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수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축적하는 중심기관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원화성은 성곽 자체뿐 아니라 정조의 정치적 구상과 계획도시 건설, 상업과 도시공간의 형성, 행차와 의례, 군사·건축기술 등 다양한 역사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박물관이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물 및 기록 자료의 체계적인 아카이빙, 소장 자료 연구, 학술조사 및 연구총서 발간, 기획전시 등을 지속함으로써 ‘정조의 계획도시’라는 수원의 역사적 차별성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박물관 내부의 학술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전시·교육·관광·문화상품·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와 활용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둘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의미를 전달하는 해석 거점

- 수원화성은 도시 공간에 분포된 현장형 유산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현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수원화성박물관은 개별 유산과 장소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해설자료, 답사 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관광 안내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원화성 해석의 기본 틀과 콘텐츠를 생산·제공함으로써 현장과 박물관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수원화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역사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세계유산 관련 박물관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수원화성의 보존·연구·해석·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세계유산 해석 및 교류 거점으로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수원화성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와 활동을 연결하는 중재 플랫폼

- 향후 재정비에서 특히 강화해야 할 역할은 박물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외부의 다양한 주체 및 활동과 연결하는 중재·연결 기능임
- 박물관은 소장자와 연구자, 연구자와 관람객을 연결하는 전통적인 매개 기능과 함께, 관광객과 지역주민, 관광과 교육, 역사유산과 축제, 학술연구와 문화콘텐츠 생산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중재 기능은 현재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인 동시에, 기존의 연구·전시 역량을 도시의 관광과 문화콘텐츠로 확장하기 위해 향후 재정비에서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임

○ 넷째, 화성 서사의 원천 공급자

- 박물관이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에서 생산되는 수원화성 관련 콘텐츠의 역사적·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원천 콘텐츠 공급자’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소장 자료와 연구 성과의 체계적인 디지털화 및 공개, 주요 인물·사건·장소별 기초자료 구축, 이미지·해설자료 제공체계 마련 등을 통해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단순한 자료 제공에 그치지 않고 방송·영상·관광·전시·문화상품 등의 기획 단계부터 역사적 사실 검증, 해석 자문, 공동연구 및 공동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상설 협업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외부 기관·미디어·관광사업자·콘텐츠 제작자가 수원화성과 정조에 관한 콘텐츠를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자료와 전문성을 찾는 기관으로 수원화성박물관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음

제2절 콘텐츠 재정비 방향

- 콘텐츠 재정비는 상설전시의 스토리와 전달 방식, 학술 콘텐츠의 확장, 브랜드·체험 기능까지 아우르는 여섯 개 방향으로 추진함
 - 상설전시는 층별·구역별 주제를 명확히 하고 스토리라인과 동선을 강화하여 관람객이 전시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재구성함
 - 전시 매체는 사진·패널 중심에서 벗어나 설명형 영상, 미디어아트, 참여형 콘텐츠를 관람 흐름에 맞게 배치하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은 지양함
 - 학술 콘텐츠는 조사-학술발표-전시로 이어지는 3년 주기 체계를 상시화하여 축적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전시로 연결함
 - 전시 주제는 정치사·축성 중심에서 음식·음악·의복 등 생활문화로 확장하여 동시대 관람층과의 접점을 넓힘
 - 브랜드와 뮤지엄숍·굿즈는 유물의 형태 복제가 아닌 기록과 서사를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체험·교육은 관람객이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표 4-1 | 수원화성박물관 콘텐츠 재정비 방안

구분	핵심 방향	주요 내용
1. 전시 재구성	'보는 박물관'에서 '이해하고 머무르는 박물관'으로 전환	• 총별·구역별 주제 명확화(정조, 축성, 세계유산, 복원 등) • 전시 동선 및 스토리라인 강화, 도입부·안내체계 개선 • 유물 설명 및 역사적 맥락 보완 • 조도·노후시설 개선 및 핵심 유물 중심 전시 재편
2. 해석 매체와 디지털 활용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균형 있는 병행	• 영상·미디어 콘텐츠 보완 • 도입부·몰입형 콘텐츠의 단계적 배치 • 설명형 영상·미디어아트·참여형 콘텐츠 적정 배분 • AI 생성 콘텐츠의 역사 고증 및 전문가 감수 체계 구축 • 학예연구 성과와 연계한 온라인 콘텐츠 및 '내 손안에 박물관' 상시 운영
3. 학술 심화와 주제 갱신	연구성과의 지속적 축적과 확장	• 조사·학술발표·전시를 연계한 3년 주기 연구체계 구축 • 학술총서를 시리즈화하여 전문성 강화 • 화성원행을 행사별·주제별로 심층 조명 • 19세기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 성곽 외부 유적과 연계한 전시·답사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아카이브 공유 확대(PDF, 원문 공개 등)
4. 횡단적 주제화와 동시대 접점	생활문화 중심의 새로운 해석	• 정치·축성 중심에서 음식·음악·의복·길 등 생활문화 중심으로 전환 • 음식(화성 행차), 봉수당 진찬, 궁중음악 등 감각형 콘텐츠 개발 • 의복·색채·이동·생활사 등 신규 주제 발굴 • 동시대 관심사와 학술 고증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 • 전시를 교육·출판·굿즈로 확장하는 콘텐츠 생태계 구축
5. 브랜드 확장 및 뮤지엄숍·굿즈 연계	박물관 브랜드 확장 및 운영체계 개선	• 굿즈를 콘텐츠 전략의 일부로 활용 • 유물 복제가 아닌 기록과 서사를 활용한 상품 개발 • 전시와 굿즈를 동시 기획하여 브랜드 경험 강화 • 수원 관광 및 화성문화제와 연계한 관광 생태계 구축 • 국내외 박물관 협력 확대 • 교육홍보 기능 강화, 전문 인력 및 청년 참여
6. 관람객이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콘텐츠·프로그램 확대	관람객이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 수원화성문화제 등 주요 행사·축제와 연계한 시즌형·특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존 어린이 중심 체험에서 가족·청소년·성인 등 다양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 • 정조, 화성 축성, 의궤, 전통생활문화 등 수원화성박물관의 핵심 자원을 활용한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이 분리되지 않도록 전시 연계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관람 경험의 확장 유도

제3절 공간·시설 재정비 방향

- 공간·시설 재정비는 기반설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보존·수장 환경, 전시공간, 관람·체류 기반, 유희공간의 순으로 다섯 방향을 병행 추진함
 - 노후화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설비는 관람객과 소장품의 안전에 직결되므로 다른 어떤 과제보다 먼저 점검하고 보수함
 - 수장고는 수장 설비 재배치 및 필요 설비 구비가 우선 필요하며, 이후 개방형(보이는) 수장고 도입 검토
 - 전시공간은 화성축성실·화성문화실의 면적 제약 속에서 몰입형 콘텐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재편
 - 관람·체류 기반은 카페와 어린이체험실의 위치를 상호 교체하여 체험 공간을 확대하고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함
 - 로비·복도 등 기존 공간(유희공간)의 기능 전환

표 4-2 | 수원화성박물관 공간 재정비 방안

구분	핵심 방향	주요 내용
1. 기반설비 안전성 확보	노후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설비의 안전성 확보	• 건축 구조 및 마감재 노후도 진단 • 기계(공조·급배수)·전기·통신 설비 노후도 진단 및 시급 보수 • 관람객·소장품 안전에 직결되는 항목부터 최우선 보수
2. 전시 공간	전시공간 재편 및 몰입형 콘텐츠 수용	• 기존 전시실 면적 한계를 고려한 공간 재구성 • 화성축성실과 화성문화실의 기능 차별화 • 몰입형 콘텐츠 전용 공간 확보 • 1층 로비를 인트로 공간으로 전환 •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간 연계 운영체계 구축
3. 보존·수장 환경	보존환경 고도화 및 수장 기능 강화	• 소장품 중 지류(종이) 유물 비중이 높은 특성을 반영한 지류 보존처리실 확보 • 지류 보존 전문인력(보존과학 인력) 확보 • 온·습도, 조도, 공조 설비 등 보존환경 정밀진단 및 단계적 개선 • 수장 설비 재배치 및 필요 설비 구비. 이후 개방형(보이는) 수장고 도입 검토
4. 관람·체류 기반	체류형 관람환경 및 이용 편의 개선	• 어린이체험실을 박물관 입구 옆(현 카페 위치)으로 이전하여 접근성 확보 제안 • 기존 어린이체험실 자리에 카페·휴게 기능 재배치 • 휴게·독서·식음 공간 등 체류형 편의시설 확충 • 뮤지엄숍의 독립 운영 및 전시 연계 기능 강화 • 유니버설 디자인 및 무장애 관람환경 구축

5. 유휴공간 활용	단계적 공간 재편 및 리모델링 기반 마련	- 로비·복도 등 유휴공간의 기능 전환을 통한 활용도 제고 - 기능 전환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을 우선 추진 -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범위와 예산의 타당성 확보
------------	------------------------	--

제4절 콘텐츠 개선의 도달점과 물리적 한계

표 4-3 | 과제 별 콘텐츠 개선에 따른 해결 가능성 검토

과제	콘텐츠 개선으로 해결 가능 여부	제약 물리조건	대응
전시 설명·복제품 표기·안내 체계	가능	-	즉시 실행
조도 및 노후 설치물 정리	가능	-	즉시 실행
관광 동선·축제 연계	가능	-	즉시 실행(부서 협의)
아카이브 공유·총서 시리즈화	가능	-	즉시 실행
굿즈 개발	부분 가능	뮤지엄숍이 카페테리아와 통합된 140㎡ 구조	시범 운영 후 공간 개선방안 검토
어린이체험실 수용력	불가	179㎡, 1회차 15명·20분 단위 15회차	카페와 위치 교체를 통한 면적 확장 및 회차 구조 재설계
체류·휴게·식음 공간	불가	편의시설 총169㎡, 확보 가능 면적 부재	공간 재편 또는 증축
노후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설비	불가	준공 후 17년간 전면 정비 없음	설비 전면 정비
보존 환경 성능 (지류 보존 포함)	불가	지류 유물 비중이 높으나 지류 보존 처리실·전문인력 부재, 공조 설비 노후	지류 보존처리실 확보 및 설비 전면 정비
실감·몰입형 상설 콘텐츠	불가	화성문화실 409㎡, 별도 영상실 구축 불가	전시공간 구조·기능 개선 필요

앵커 오브젝트 전용 공간	불가	조도 분리·감상 밀도 확보를 위한 구획 불가	전시공간 구조·기능 개선 필요
개방형 수장고	불가	수장고가 지하에 위치해 관람객 접근이 어려운 구조, 공개형 전환에 필요한 위치·구조 미비	리모델링을 통한 수장고 위치 재구성 후 개방형 전환 검토

□ 예산 소요가 없거나 비교적 적고 현 시설 여건에서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과제는 전면 리모델링 추진과 병행하여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전시 설명을 보완하고 주요 유물·인물에 대한 설명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관람객의 이해도 제고
- 전시실 입구별 주제 안내를 강화하고 박물관 전체 배치도와 관람동선을 제공하는 한편 브로슈어·안내판 등 기본 안내체계 개선
- 조도 조정, 노후 장식요소 및 불필요한 설치물 정리 등 별도의 대규모 공사 없이 가능한 전시환경 개선 우선 추진
- 수원 관광 홈페이지 답사코스 및 관광지도에 박물관을 편입하고, 수원화성문화제 등 주요 축제·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절판·비매품 총서의 PDF 공개, 유일본 문서의 디지털화, 유물 해제와 연구총서 간 연계를 통해 소장·연구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 기록자원을 활용한 굿즈 시범 품목 개발과 기존 뮤지엄숍의 진열·동선을 개선하여 향후 재개관 이후 문화상품 운영방향 사전 검증
- 연간 콘텐츠 편성체계를 마련하고 학예연구 성과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박물관 연구성과의 활용 확대
- 조사·학술발표-전시로 이어지는 연구성과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총서의 시리즈화를 통해 콘텐츠 생산기반 강화

□ 콘텐츠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 존재

-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콘텐츠·운영 개선과제가 다수 존재하지만, 공간의 절대적 부족, 노후 기반설비, 수장·보존환경 등 핵심 과제는 콘텐츠나 운영방식의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물리적·구조적 문제로 판단됨

- 어린이체험실은 프로그램 개선만으로는 1회차 수용인원 15명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지속되므로, 공간 재배치를 통한 면적 확대 필요
- 체류·휴게공간은 기존 로비·복도의 기능 전환만으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관람동선과 공간구조 자체의 재편 필요
-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및 조명 등 기반설비는 준공 이후 17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가 누적되어, 관람객과 소장품의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점검과 시설 재정비 필요
- 지류 중심의 소장품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정 보존환경과 보존처리 기능 확보가 필요하며, 수장고 및 공조설비 개선과 보존처리 공간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비 필요
- 실감·몰입형 상설 콘텐츠와 앵커 오브젝트 등 새로운 전시방식을 기존 전시공간에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시공간의 구조 및 기능 재편 필요
- 개방형 수장고는 현재 지하에 위치한 수장공간의 접근성과 동선상 한계로 즉각적인 도입이 어려우므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수장공간의 위치·기능을 재검토한 후 도입 검토

□ 콘텐츠 개선을 넘어서 공간·시설 재정비 검토 필요

- 현황 진단 결과,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콘텐츠·운영 개선과제가 다수 존재하지만, 공간의 절대적 부족, 노후 기반설비, 수장·보존환경 등은 콘텐츠나 운영방식의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물리적·구조적 과제로 나타남
- 특히 체험실의 수용력, 체류·휴게공간 부족, 노후 기반설비, 수장·보존환경, 새로운 전시방식의 수용 한계 등은 공간구조와 시설 전반의 재정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시설에서 가능한 콘텐츠·운영 개선을 우선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건축·시설과 전시·체험·교육, 수장·보존, 체류·편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재정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구체적인 재정비 사업방식은 사업 범위와 효과, 사업기간, 재정 부담, 기존 시설의 구조적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리모델링과 콘텐츠·운영 개선의 병행 추진 필요

- 리모델링은 기본구상,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 등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기간을 단순한 준비기간으로 두기보다 현재 시설에서 실행 가능한 콘텐츠·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27년에는 기본구상과 시설·설비 현황 검토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시 설명체계, 안내·동선, 온라인 콘텐츠, 관광·축제 연계 및 굿즈 등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를 병행하고, 이후 설계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신규 전시·체험 콘텐츠와 공간별 운영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박물관의 관람환경과 콘텐츠 품질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성과를 전면 리모델링에 반영함으로써 시설 준공과 동시에 새로운 전시·체험·보존·편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합적인 재정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05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리모델링 추진의 필요성과 사업 방식

1 리모델링 추진 논거

필요성
1

변화하는 전시환경에 대응할 공간 부족

- 실감콘텐츠, VR·AR,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체험형 전시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 전시공간은 고정형 진열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전시방식 적용에 한계
- 기존 전시실의 면적과 구조적 제약으로 몰입형 콘텐츠 전용공간 확보와 전시공간의 유연한 재구성이 어려운 상황

필요성
2

개관 이후 지속된 시설 노후화

- 준공 이후 17년이 경과하면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및 조명 등 기반설비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필요
- 관람환경의 쾌적성과 운영 안정성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소장품의 안전에 직결되는 설비를 중심으로 선제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

필요성
3

다양한 체험·참여형 콘텐츠 수용 한계

- 현재 공간은 관람·이동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험·교육·참여 등 다양한 활동과 이용방식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데 한계
- 아동·고령자·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장애·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체험환경으로 공간 재편 필요

필요성
4

관람객 체류를 위한 공간 확충 필요

- 카페·휴게공간, 어린이체험실, 뮤지엄숍 등 주요 편의·체험 기능이 관람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함
- 관람 흐름을 고려하여 카페·휴게공간, 어린이체험실, 뮤지엄숍 등의 위치와 기능을 재배치하고, 전시·체험·휴식이 연속되는 체류형 공간구조로 재편할 필요

□ 필요성 1. 변화하는 전시환경에 대응하는 공간·콘텐츠 재편 필요

- 실감콘텐츠, VR·AR,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체험형 전시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 전시공간은 고정형 진열 중심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전시방식 적용에 한계
- 실감형 상설 콘텐츠, 앵커 오브젝트 등은 전용공간과 적정 관람환경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콘텐츠 개선만으로는 한계
- 기존 전시실의 면적과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여 전시공간의 재배치와 유연한 공간구조 확보 필요

□ 필요성 2. 개관 17년 경과에 따른 노후 시설·설비의 전면 정비 필요

- 2009년 준공·개관 이후 17년이 경과하면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및 조명 등 기반설비의 노후화가 누적
- 상설전시실 전면 개편과 공조설비의 전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 전시시설뿐 아니라 관람객과 소장품의 안전에 직결되는 설비 전반의 점검·개선 필요
- 부분적 보수보다 건축·설비·전시환경을 연계한 종합적인 시설 재정비를 통해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 확보 필요

□ 필요성 3.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전문환경 구축 필요

- 소장품의 상당 부분이 지류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수장환경을 넘어 지류 특성에 적합한 보존환경과 전문적인 보존처리 기능 확보 필요
- 현재 지류 보존처리실과 전담 전문인력이 부재하여 주요 보존처리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 소장품 구성에 부합하는 자체 보존관리 기반이 미흡
- 수장고·공조설비 개선과 함께 보존처리 공간 및 개방형 수장고 등을 검토하여 수장·보존·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필요

□ 필요성 4. 체험·편의·체류 기능 확충을 위한 공간구조 재편 필요

- 어린이체험실의 수용력과 전시환경, 카페·휴게공간 등 체험·편의 기능에 대한 이용자 개선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나 현 공간구조에서는 확충에 한계
- 어린이체험실, 체류·편의공간 등은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물리적 공간 확보가 필요한 과제
- 향후 무료화에 따른 이용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관람·체험·휴식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공간 재배치와 관람동선 전반의 재구조화 필요

2 · 사업 방식 대안 비교

표 5-1 | 사업 방식 안

구분	1안 전시 한정 리모델링	2안 전면 리모델링	3안 단계적 정비 후 리모델링	4안 별동 증축
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4순위
내용	상설전시 중심 부분 개편	건축·설비 및 공간 전면 재정비	우선 정비 후 단계적 리모델링	별동 증축을 통한 공간 확충
장점	사업비·기간 부담 최소화	노후시설·공간구조의 근본적 개선	운영 지속 및 사업비 분산	부족 공간의 대폭 확충
한계	시설·공간 개선 범위 제한	휴관 및 초기 사업비 부담	사업장기화·중복투자 우려	부지 제약 및 기존 시설 노후 잔존

□ 재정비 사업방식 검토: 수원화성박물관의 노후 시설·설비, 전시환경, 보존기능, 체험·편의공간 등 주요 개선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 한정 리모델링, 전면 리모델링, 단계적 정비 후 리모델링, 별동 증축의 4개 대안을 검토함

- 1안 전시 한정 리모델링은 상설전시 중심의 부분 개편으로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노후 기반설비와 수장·보존환경, 체류·편의공간 등 박물관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2안 전면 리모델링은 건축·설비 및 공간구조와 전시·체험·보존·편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현재 확인된 노후시설과 공간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가능함. 다만 일정기간 휴관과 초기 사업비 부담이 수반됨
- 3안 단계적 정비 후 리모델링은 운영을 지속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향후 전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선행 공사의 철거·재시공 등 중복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4안 별동 증축은 기존 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체험·편의·수장 등 부족 기능을 대폭 확충할 수 있으나, 부지 및 경관상 제약이 크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 시설·설비 문제는 그대로 잔존한다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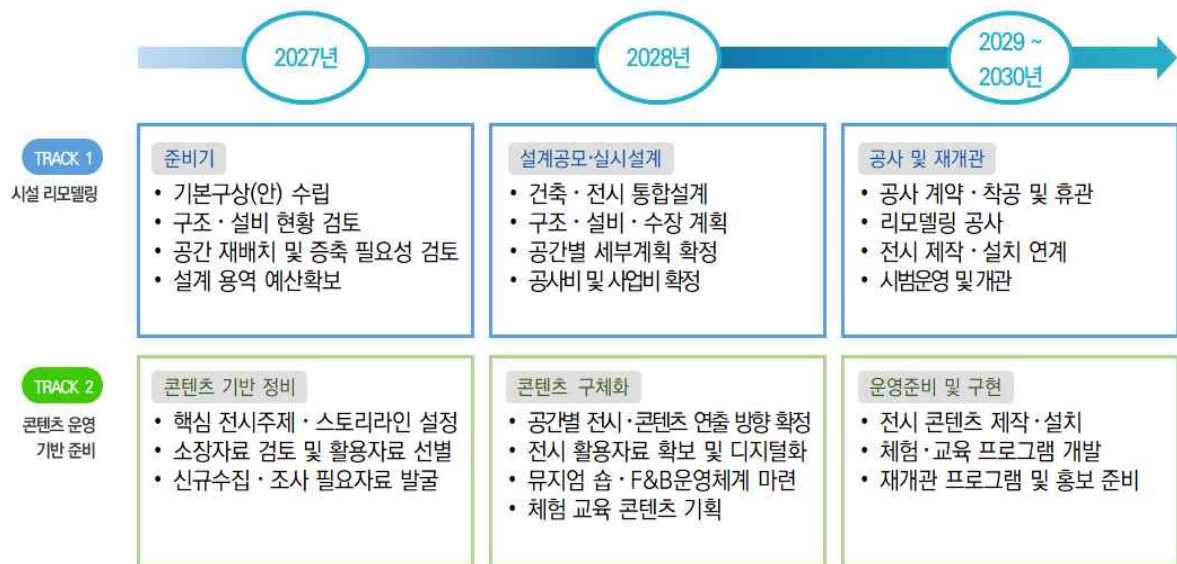
□ 검토 결과

- 네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2안 ‘전면 리모델링’을 우선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전면 리모델링은 단순한 전시 개편이 아니라 노후 기반설비 개선, 공간구조 재편, 수장·보존 환경 강화, 전시·체험 콘텐츠 고도화, 관람객 체류·편의공간 확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임
- 특히 개별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경우 향후 전면 리모델링 시 철거·재시공에 따른 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시설과 전시·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일괄 재정비하는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임

제2절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

1. 추진 방안



□ 건축·시설과 콘텐츠·운영을 연계한 투트랙 방식으로 재정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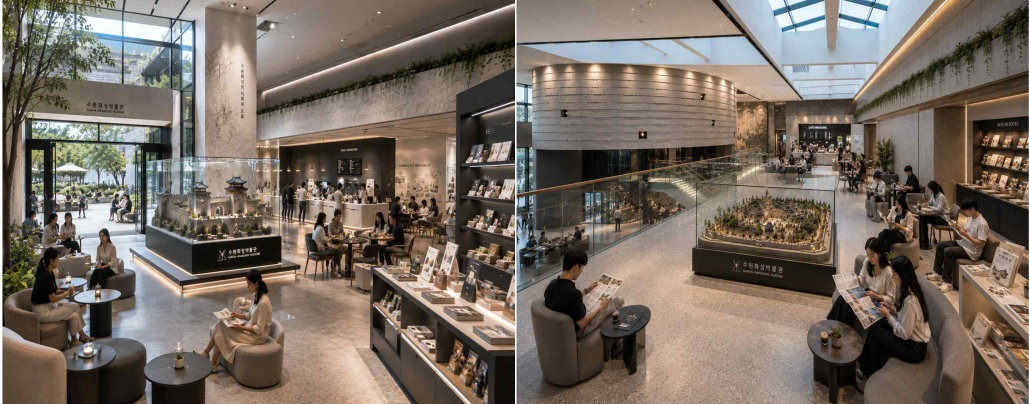
- 노후 시설 개선에 한정하지 않고 전시·체험·교육 콘텐츠와 운영체계를 함께 재정비하여 박물관의 공간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개선
- 시설 리모델링 일정과 콘텐츠 기획 일정을 연계하여, 공사 완료 후 콘텐츠를 별도로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기획·설계 단계부터 공간과 콘텐츠의 정합성을 확보

□ 2027년은 전면 리모델링을 위한 준비 및 콘텐츠 기반 정비 단계로 추진

- 건축·시설 분야는 기본구상 수립, 구조·설비 현황 검토, 공간 재배치 및 증축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향후 설계의 기본방향 마련

- 콘텐츠·운영 분야는 박물관의 핵심 전시주제와 스토리라인을 재정립하고, 소장자료 및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신규 전시·체험 콘텐츠 발굴
- 2028년은 건축·전시 통합설계와 콘텐츠 구체화를 병행하는 실행계획 수립 단계로 추진
 - 건축·전시 통합설계를 통해 구조·설비·수장계획과 공간별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공사비 및 사업비를 구체화
 -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전시 활용자료 확보, 디지털화, 뮤지엄숍·F&B·체험·교육 콘텐츠 등을 구체화하여 재개관 이후 운영까지 고려한 실행체계 마련
- 2029~2030년은 전면 리모델링 공사와 콘텐츠 제작·설치를 연계하여 재개관 추진
 - 일정기간 휴관을 전제로 건축·설비·전시공사를 집중 추진하여 단계별 공사에 따른 중복 투자와 공사 장기화를 최소화
 - 공사 일정에 맞춰 전시 콘텐츠 제작·설치,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준비를 병행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재개관 추진
- 단계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에서 '박물관 기능 전반의 재정비'로 확장
 - 준비기-설계기-공사-재개관 단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건축·시설과 콘텐츠·운영 분야의 세부 과업을 연동
 - 이를 통해 전시·체험·교육, 수장·보존, 관람객 편의·체류, 운영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수원화성박물관 전면 재정비 추진

표 5-2 | 재정비 변화(안)

구분	재정비 (안)	
체류·편의		
전시·다변화		
수장·보존		
역할·허브 (야외 공간)		

2 • 기대효과

[위상] 연구하고 해석하는 박물관 보존·수장 기능 확보로 소장품의 연구 자원화 연구 성과의 기획전시·학술총서 연계	[역할] 수원화성 관람의 '관문'으로 진입공간 정비로 화성 방문객 유입 개선 화성행궁·성곽길·축제 연계 거점화
[관광] 찾아오고 머물게 하는 박물관 몰입형 전시로 방문 목적지화 카페·휴게·뮤지엄숍 확충으로 체류시간 증대	[가치]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가치 확산 음식·음악·생활사 등 주제 다변화로 반복 방문 유도 전시·교육·체험·굿즈 연계로 관람 이후까지 확산

(1) 수원화성의 가치를 연구·해석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위상 강화

- 소장품의 수장·보존환경과 연구기반을 강화하여 박물관 본연의 수집·보존·연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수원화성·정조 관련 소장자료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시·교육·체험·디지털 콘텐츠로 연계하여 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
- 박물관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역사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전문기관으로 위상 강화

(2) 수원화성 관람의 출발점이자 관광 거점으로 역할 확대

- 수원화성의 역사·공간·인물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와 해설 기능을 강화하여 수원화성 관람 전 사전 이해를 제공하는 해석 거점으로 기능 확대
- 화성행궁·성곽·인근 문화시설 등 주요 관광자원과 박물관의 전시·교육·체험 콘텐츠를 연계하여 수원화성 권역의 관광동선 강화
- 수원화성문화제 등 주요 축제·행사와 연계하고 관광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여 박물관을 중심으로 수원화성 관광자원 간 연결성 강화

(3) 관람에서 체험·휴식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박물관으로 전환

- 실감·몰입형 전시와 어린이·가족 대상 체험콘텐츠를 확대하여 기존 관람 중심의 이용방식에서 참여와 경험 중심의 박물관으로 전환
- 어린이체험실, 카페·휴게공간, 뮤지엄숍 등 체험·편의기능을 확충하고 관람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람객의 이용 편의와 체류환경 개선
- 전시 관람-체험-휴식-문화상품 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구조를 조성하여 박물관의 방문 매력과 관람객 체류시간 증대

(4) 박물관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가치 확산

- 소장자료와 연구성과를 전시·교육·체험·문화상품·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수원화성의 가치를 접할 수 있는 접점 확대
- 정조·건축·기록유산뿐만 아니라 음식·음악·생활문화 등 수원화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콘텐츠화하여 반복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기반 강화
- 박물관 내부에서 형성된 이해와 경험을 수원화성 현장과 주변 문화·관광자원으로 연결하여 박물관의 영향력을 개별 시설에서 수원화성 권역 전체로 확장

(5) 시설·콘텐츠·운영의 통합 재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보

- 노후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및 전시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관람객과 소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시설 운영의 안정성 제고
- 건축·시설과 전시·콘텐츠를 기획·설계 단계부터 연계하여 공간 조성 이후 추가적인 콘텐츠 보완이나 재시공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완성도와 투자 효율성 제고
- 재개관 이후 확대되는 전시·체험·보존·관광 기능에 대응하여 운영체계와 전문인력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전면 리모델링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운영 기반 마련

제3절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수원화성박물관의 현황을 진단하고(제2장), 국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며(제3장), 재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제4장),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는(제5장) 순서로 진행됨
- 제2장에서는 높은 관람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전시 구성과 설명방식의 노후화, 체험·편의공간 부족, 노후 시설·설비 및 수장·보존환경 개선 등의 과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함. 특히 현재의 운영 및 콘텐츠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공간적·물리적 한계가 누적되고 있어 박물관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진단함
 - 제3장에서는 국내외 박물관 사례를 전시·콘텐츠, 공간·시설, 운영·브랜딩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기존 소장자료와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체험·체류 중심의 관람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운영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성을 도출함
 - 제4장은 이러한 진단과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화성박물관의 역할을 '세계유산 수원 화성의 역사와 가치를 해석·전달하는 핵심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콘텐츠와 공간·시설 부문의 재정비 방향을 구체화함. 특히 실감형 상설 콘텐츠, 어린이체험실, 체류·편의공간, 수장·보존환경, 노후 기반설비 등은 콘텐츠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물리적 과제로, 시설 재정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함
 - 제5장은 전시 한정 리모델링, 전면 리모델링, 단계적 정비 후 리모델링, 별도 증축의 4개 사업방식을 비교·검토한 결과, 건축·설비·공간구조와 전시·체험·보존·편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면 리모델링(2안)'을 우선 대안으로 제안함. 이에 따라 건축·시설 리모델링과 콘텐츠·운영 기반 정비를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준비-설계-공사-재개관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1) 전면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사업기반 마련

- 전면 리모델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비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사업의 범위와 규모, 공간 재구성 방향 구체화 필요
 -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및 조명 등 노후 기반설비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구조·설비의 성능과 안전성, 향후 개선 필요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 어린이체험실, 휴게·편의공간, 뮤지엄숍, 수장·보존공간 등 현재 공간구조에서 확충이 필요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간 재배치 및 기능별 적정 규모 설정
 - 수장고의 위치·규모·수장률과 소장품 재질별 보존환경을 검토하고, 지류 중심의 소장품

특성을 고려한 보존처리 공간 및 전문기능 확충방안 마련

- 기본구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의 과업범위와 사업비를 구체화하여 전면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실행기반 확보

(2) 건축·시설과 전시·콘텐츠의 통합적 재정비 추진

- 시설과 콘텐츠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기획·설계 단계부터 연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전면 리모델링 추진

- 건축·시설 부문은 공간구조 재편, 노후 기반설비 개선, 수장·보존환경 강화, 관람객 체류·편의공간 확충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재정비 추진
- 콘텐츠 부문은 수원화성과 정조 관련 소장자료 및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핵심 전시주제와 스토리라인을 재정립하고 상설전시·실감형 콘텐츠·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기획
- 건축설계와 전시기획을 초기 단계부터 연계하여 공간이 확정된 이후 콘텐츠를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시·체험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조와 관람동선 구현
- 공사 일정과 전시 제작·설치를 연계하여 시설 준공 이후 콘텐츠 구축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적인 재개관 추진

(3) 체험·체류 중심의 관람환경 및 편의기능 강화

- 관람 중심의 공간에서 체험·학습·휴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체류형 박물관으로 공간구조 재편

- 어린이체험실의 수용력과 프로그램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연령과 이용 특성을 고려한 체험·교육공간으로 재구성
- 카페·휴게공간, 뮤지엄숍 등 현재 분산되거나 기능이 미흡한 편의공간을 관람동선과 연계하여 재배치하고 관람 전·후 체류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기능 강화
- 실감형 콘텐츠, 디지털 전시, 앵커 오브젝트 등 새로운 전시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보
- 무장애 관람환경과 휴게·안내 기능을 함께 개선하여 연령과 이용 특성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관람·체험·체류할 수 있는 공간환경 조성

(4) 수장·보존 및 연구기능 강화

- 박물관의 기본 책무인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전면 리모델링의 핵심 기능으로 반영
 - 소장품의 재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장고의 규모·배치와 온·습도 등 보존환경을 재검토하고, 향후 소장품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수장체계 구축
 - 지류 중심의 소장품 구성에 대응하여 지류 보존처리 공간 및 관련 전문기능을 확충하고 외부 위탁 중심의 보존관리 방식 개선
 - 수장·보존 기능을 단순한 후방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개방형 수장고 등 관람객과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
 - 소장 자료의 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디지털 콘텐츠 활용이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박물관의 연구성과가 시민의 관람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 마련

(5) 재개관 이후를 고려한 운영체계 및 전문인력 강화

- 전면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과 기능의 확대가 실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인력체계를 함께 정비
 - 전시·교육·연구뿐만 아니라 관광·홍보, 문화상품, 디지털 콘텐츠, 대외협력 등 확대되는 박물관 기능에 대응하여 조직 및 업무체계 재검토
 - 수장·보존, 전시기획, 교육·체험, 홍보·마케팅 등 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 전시·체험 콘텐츠와 뮤지엄숍·F&B 등 신규·확대 기능에 대한 운영방식을 리모델링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재개관 이후 운영상 혼선 최소화
 - 시설 재정비와 운영체계 개선을 병행하여 새롭게 조성된 공간과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활용·관리될 수 있는 운영기반 구축

(6) 수원화성 해석 거점으로서 연계·협력체계 강화

- 수원화성박물관의 역할을 개별 박물관을 넘어 수원화성 권역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결하는 해석 거점으로 확대
 - 화성행궁·열린문화공간 후소 등 인접 문화·관광시설과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연계하여 수원화성 권역의 콘텐츠 간 연결성 강화
 - 수원화성 관광 동선에 박물관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수원화성문화제 등 주요 축제·행사와 박물관의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홍보를 연계

- 박물관의 소장자료와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공동전시·공동 콘텐츠 개발·학술교류 등을 확대하고 박물관 내부의 연구·전시성과를 수원화성 권역 전체로 확장
- 관련 부서·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관광·문화·축제·홍보 분야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수원화성을 이해하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박물관의 위상 강화

[부록] 리모델링 세부 구성(안)

□ 공간 구성 계획(안)

구분	공간 구성	변경 및 활용 계획
2층	상설전시실 1, 2	• 화성 축성 과정과 능행차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 • 실감형 미디어아트, VR존, AR 도슨트 등
1층	로비·안내데스크	• 오픈 라이브러리 등 열린 문화공간 조성 • 중앙 자연광 천창 활용한 실내 조경
	어린이체험실	• VR 체험 등 오감 체험형 교육 공간 조성
	카페테리아 뮤지엄숍	• 뮤지엄숍 독립, 카페 전면 개선
	다목적강당 사회교육실	• 노후 시설 정비
	기획전시실	• 노후 시설 정비
지하	수장고 보존처리실	• 시스템 개선, 보존 환경 개선 등
야외	광장 야외전시실 야외무대	• 야외전시물(거중기 등) 중앙 배치 • 야외 전시와 연계한 AR 투어 코스 개발 • 휴식형 조경 및 야간 미디어아트 설치 • 박물관 외곽 수변공원 조성 • 외부 디지털 안내판(다국어 지원) 설치

1) 열린 로비·복합문화공간 조성: 머물고 즐기는 박물관

□ 개편방향

- (체류형 편의공간) 카페·휴게공간 확충, 뮤지엄숍 독립·고도화·대표굿즈 제작
- (유희공간 활용) 로비·복도를 열린 휴게·문화공간(오픈라이브러리 등)으로 전환
- (체험 공간 확대) 어린이체험실 확대 및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무장애 관람환경) 무장애 공간 및 무장애 전시 콘텐츠 구축

□ 세부대안(안)

〈안1〉 위치 교체(비증축)

주요 내용

- 카페와 체험실의 위치를 교체
- 기존 로비 공간 일부를 휴게공간으로 재구성
- 어린이체험실 공간 확장 및 콘텐츠 신규 구성

장·단 점

- 〈장점〉 건축·문화재 관련 인허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단점〉 확장 가능한 면적이 기존 건물 규모 내로 제한



※ 어린이체험실 공간 조성 소요 예산은 [2] 전시 패러다임 전환 부분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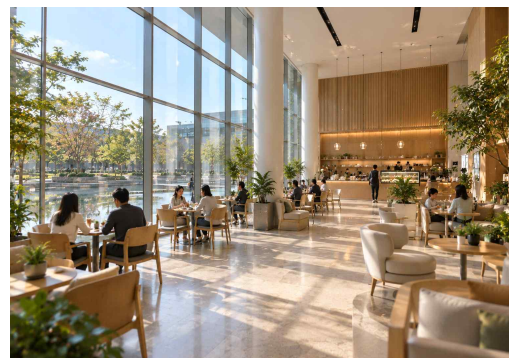
〈안2〉 위치 교체 + 증축

주요 내용

- 카페와 체험실 위치 교체 및 로비 공간 재구성
- 카페 인접부에 증축을 병행하여 면적 확장

장·단 점

- 〈장점〉 실질적 면적 확대
- 〈단점〉 증축에 따른 건축·문화재 심의 등 인허가 절차 추가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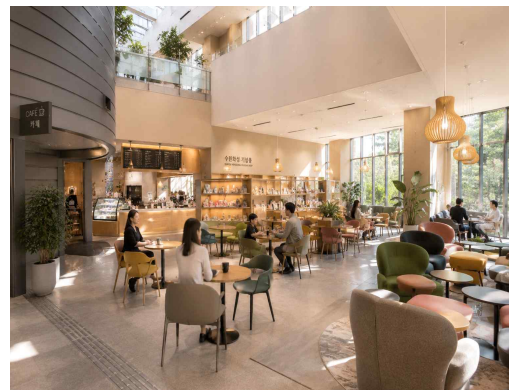
〈안3〉 위치 유지(현상 정비)

주요 내용

- 현재 위치와 면적은 그대로 유지
- 체험실 면적 확장 없이 전시·교육 콘텐츠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

장·단 점

- 〈장점〉 운영 중단 기간 최소화, 건축 인허가 부담이 거의 없음
- 〈단점〉 체험실 협소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계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



2) 전시 패러다임 전환: 이해하고 경험하는 전시

□ 개편방향

- (상설전시 재구성) 핵심 주제 중심 스토리라인 및 관람 동선 전면 재구성
- (전시매체 다변화) 실감영상·미디어아트·VR체험·홀로그램 등 몰입형 콘텐츠 도입
- (전시·체험 연계) 전시와 교육·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콘텐츠 구성
- (기획전시실 재정비)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도록 제반 시설 정비

□ 세부대안(안)

〈안1〉 전시실 구조 전면 개편

주요 내용

- 전시실 내부 벽체·진열장 배치를 재구성
- 디지털 기반 몰입형 콘텐츠(실감영상·미디어아트·인터랙티브 등)를 동선 곳곳에 배치
- 기획전시실 재정비
- 어린이체험실 공간 확장 및 콘텐츠 신규 구성

장·단점

- 〈장점〉 몰입형 경험을 제공해 만족도·체류시간 증대
- 〈단점〉 상설전시실 전체 휴관이 불가피



〈안2〉 콘텐츠 보강(동선 유지, 매체만 교체)

주요 내용

- 기존 전시실 구획·관람 동선은 그대로 유지
- 실감영상·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콘텐츠 일부 교체

장·단점

- 〈장점〉 벽체·바닥 등 건축적 개조 없이 시행 가능
- 〈단점〉 스토리 라인 전달력 개선 효과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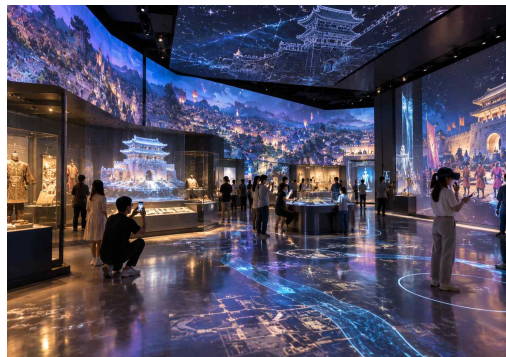
〈안3〉 몰입형 디지털 전시 강화(하이엔드)

주요 내용

- 몰입형 미디어아트 공간·VR체험존·홀로그램 전시
- 디지털 인터랙티브 형태로 체험·교육 콘텐츠 고도화

장·단점

- 〈장점〉 몰입감과 화제성 극대화
- 〈단점〉 고가 디지털 장비 도입에 따라 향후 유지보수·콘텐츠 교체 비용이 지속 발생



3) 야외공간 개편: 수원화성 연결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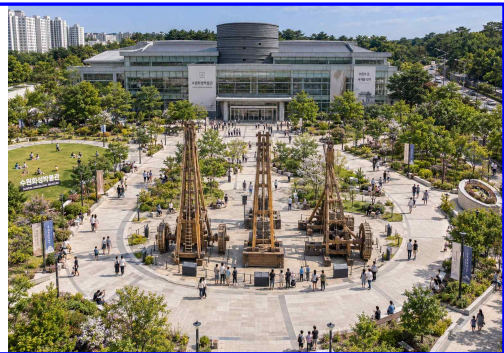
□ 개편방향

- (진입공간 정비) 입구·외관 상징성·인지성 강화 및 관광객 유입 동선 개선
- (야외공간 활성화) 야외 유물·조경·휴게공간 연계, 거중기·녹로 등 대형 전시물 재배치
- (야간경관 조성) 미디어파사드·포토존 등 야간 경관 및 야간조명 추진
- (수원화성 연계) 화성행궁·성곽길·축제 등 주변 관광자원과 전시·프로그램 연계

□ 세부대안(안)

〈안1〉 동선 재편(중앙광장 중심 재구성)

주요 내용	• 거중기·녹로 등 대형 전시물 신규 제작, 중앙 배치 • 경관 조명, 조경 식재 등
장·단점	• 〈장점〉 대형 전시물 포토스팟화·상징성 확보에 유리 • 〈단점〉 전시물·시설의 이전·재배치에 따른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증가



〈안2〉 전면 재조성(랜드마크 광장화)

주요 내용	• 야간 미디어파사드 중심의 랜드마크 광장으로 재설계 • 정문 외관까지 포함한 진입부 전체 리뉴얼 • 축제 연계 대규모 야간 프로그램 기반 마련
장·단점	• 〈장점〉 야간 관광 명소로서 상징성·화제성 극대화 • 〈단점〉 대규모 재조성에 따른 설계·심의 절차가 복잡



〈안3〉 현 배치 유지(경관 조명 보강)

주요 내용	• 현재 배치는 그대로 유지 •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명소화 추진
장·단점	• 〈장점〉 운영 중단 없이 단계적으로 시행 가능 • 〈단점〉 변화가 크지 않음



4) 박물관 전문 기능 강화: 수장·보존 기능 강화

□ 개편방향

- (수장공간 고도화) 수장고 재배치·확충 및 재질별 수장환경 개선
- (전문 보존기능 강화) 지류 보존처리실 확보 및 전문 보존기능 강화
- (보존환경 개선) 향온·향습·조도·공조 등 소장품 보존환경 전면 개선

□ 세부대안(안)

〈안1〉 수장고 내부 환경 개선

주요 내용

- 노후 향온·향습·공조 설비 전면 교체, 보존처리기기 구입 등
- 수장고 내부를 재질별로 재구획



5) 지속 가능한 박물관 기반 구축: 공통 기반 다지기

□ 개편방향

- (설비 전면 교체) 노후 기계·전기·통신·소방 설비 전면 교체
- (안전문제 해소) 누수·방수 등 시설 안전 문제 우선 해소

□ 세부내용(전면 동시 정비)

- 박물관 기능 수행 및 전시 다변화를 위해 노후 시설 정비는 필수 불가결이며 공정을 한 번에 처리하여 중복 비용과 행정 소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 공조설비 덕트, 펌프 및 배관설비, 향온향습기, 냉난방기, 승강기, 전기 및 조명, 통신시설,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배관 등 설비 전체 동시에 전면 교체

참고문헌

REFERENCE

국문 자료 |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19).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인천광역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연구: 황룡사 복원 제6차 심화연구**.
<http://uci.k-heritage.tv/data/ori/2205001/001/O/2205001-001-O00309.pdf>
- 수원화성박물관(2024~2026), **수원화성박물관 연보**. 제12-제14호. 수원화성박물관.
- 수원문화재단(2025), **2025 수원화성 관광객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원문화재단.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인천광역시. [연구진 보유 자료]
- 인천광역시. (2024~202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및 추진실적: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연구용역**.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2021). **인천뮤지엄파크(IMP) 조성사업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생각나무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홍익대학교산학협력단. (2017.11.9.).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현장 용역설명회 자료**.
- 주시드니한국문화원. (2022.5.11.). **창경사 터 오백나한전 연계 김승영 작가와의 대화 성료**.
<https://www.kocis.go.kr/kocc/view.do?seq=1041490&searchType=menu0023&langCode=lang001&ctrCode=CTR0021>
- 염인섭. (2020). 대전시립박물관 중장기 공간활용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부산연구원. (2021).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효율적 운영방안
- 창의공간. (2025). 수원시 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 연구용역

신문기사 / 웹사이트 / 통계자료 |

-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보육통계**.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 통계청. (2020.11.18.). **2020년 사회조사 결과: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86249&ord=4
- 허남설, 김태희. (2021.10.25.). **역사 짧은 유산들, 핫플을 넘어 '남길 것'의 가치 공유해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culture/art-architecture/article/202110250600025>
- 국립부여박물관. (2025.12.). **백제대향로관 개관** [보도자료]
<https://buyeo.museum.go.kr/bbs/view.do?pstSn=2601060001&key=2302150024>
- 국립중앙박물관. (2021.10.). **무령왕릉 발굴 50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 박물관신문.
<https://webzine.museum.go.kr/sub.html?amIdx=14478>
- 국립진주박물관. (2025.8.13.).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 화력조선, 구독자 10만 명 돌파** [보도자료].
<https://www.museum.go.kr/MUSEUM/contents/M0701040000.do?schM=view&catCustomType=post&arclId=2298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 **2022년 대만 문화콘텐츠 산업 정보**. 해외경제정보드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Sn=403&pNttSn=193728

문화재청. (2020.7.22.). **사라진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 디지털 복원** [보도자료].

https://www.khs.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2150§ionId=b_sec_1&mn=NS_01_02_01

문화체육관광부. (2011.7.14.). **구 서울역사, 복원 마치고 문화역 서울 284로 재탄생**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1498

인천광역시. (2026.3.16.).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 뮤지엄파크 착공, 전국 최초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보도자료].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14342108&repDt=2026-03-16

문화체육관광부.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웹페이지] https://www.mcst.go.kr/site/s_policy/dept/deptList.jsp?pType=02

수원화성박물관. [웹페이지] <https://smuseum.suwon.go.kr/hs/main/view>

연구책임자 신한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정은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이지현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 수료)
조화영 (강원대학교 강사)

SRI-정책 2026-04

수원화성박물관 재정비 사업 방향 연구

A Study on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Comprehensive Revitalization of the Suwon Hwaseong Museum

발행인 김성진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6년 08월 31일

발행 2026년 08월 31일

ISBN 979-11-6819-216-4(93350)

© 2026 수원시정연구원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신한나, 정은지, 2026. 「수원화성박물관 재정비 사업 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